8248

소년단

지덕체

196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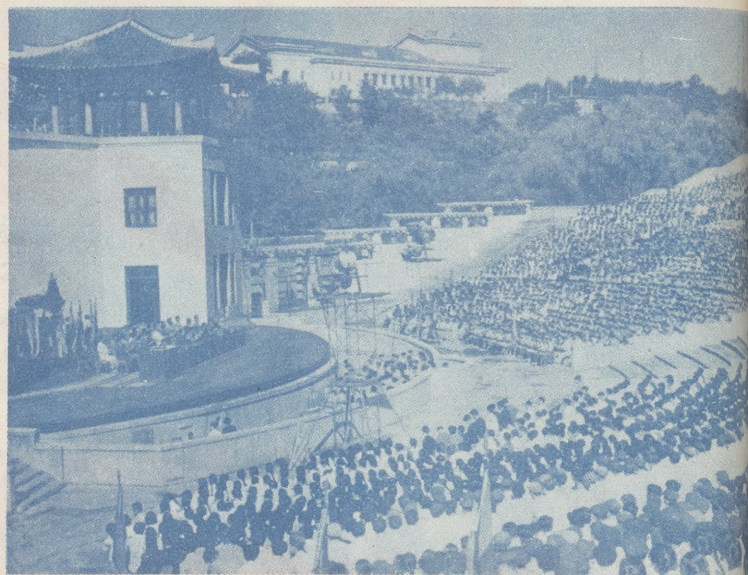
JUL 1964

첫 학생절을 맞은 기쁨

지난 10월 1일, 우리 나라 전체 학생 소년들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첫 학생절을 뜻깊게 기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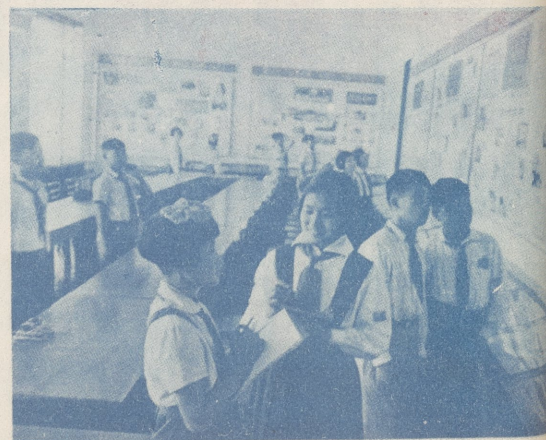
이날 우리 나라 학생 소년들은 다채로운 기념 행사들로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세상에 부럼 없이 배우며 자라는 자기들의 행복과 기쁨을 온 세상에 자랑하였습니다.

특히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전체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내 주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전체 학생 소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축하문을 받들고 계급의식을 키우며 더욱 공부 잘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지여 오직 당과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될 결의밑에 씩씩하게 배우며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절 기념 평양시 군중 대회

해주시 해주 석미 중학교 동무들의 중창
《우리반 열두 형제》

최 영옥이네 네 형제가 부르는 행복의 노래
《세상에 부럼 없어라》

자강도 중강 중학교 학생들의 농악무
《만 풍년 든 우리 마을》

이들은 학생절의 한때를 학생 소년 궁전에서 즐긴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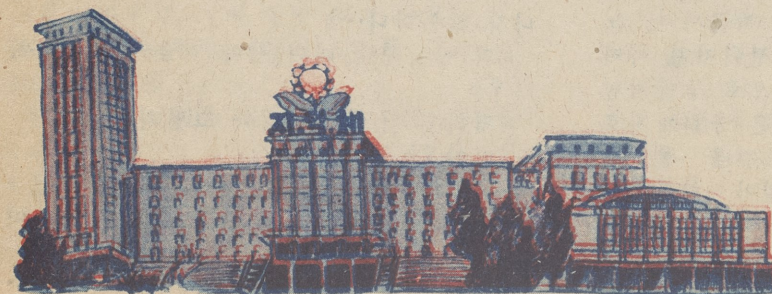
소년단

1963년 11호

세상에 부럼 없어요!

내 용

김 일성 원수님의 창덕학교시절

(제 8 회)

강 효순　　　　그림 최 순천

원수님은 웅화의 결'기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웅화는 왜 학교에 안 다니냐?》

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상 으시대던 웅화가 이 말이 떨어지자 머리를 푹 숙이며 무어라구 입 속으로 중얼거릴 뿐이였습니다. 동무들의 시선은 웅화에게로 쏠렸습니다. 원수님은 공연한 것을 물었는가 하고 웅화와 동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때에 룡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웅화는 다니구 싶어하는데두 그애 아버지가 보내 주지 않는단다.》

《왜?》

《장마당에 가면 쌀'자루는 나두 글'자루는 나지 않는다나…》

《뭐 장마당에 내다 팔아 먹을려구 공부하나?》

《당나귀 뒤'발통이니까 그렇지 뭐.》

《뭐야?》

웅화가 룡훈이를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듣기 싫으니? 그럼 너두 학교에 다니짜꾸나.》

《이게 있어야 학교에 다니지.》

웅화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지어 룡훈이 코 앞에 댔습니다.

《뭐 돈? 너네는 귀신 모시려구 동구리 사오는 돈하구 살풀이 하느라구 떡을 쳐서 푸념하는 돈만 가지구서두 너 하나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겠다.》

이 말에는 웅화도 대답할 말이 생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꺼벅 거리며 뒤통수를 쓱쓱 긁더니

《야 그런 소리는 듣기 싫다. 오래간만에 산에 올라 왔는데 씨름이나 한 번 해 보자. 너 이전에 여기서 씨름하던 생각 나니?》

웅화는 원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 난다.》

원수님의 머리에는 7년 전에 여기서 동무들과 같이 놀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원수님은 씨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웅화는 어느덧 자기의 하일목 허리끈을 글러 가지고 삭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룡훈이도 허리끈을 글렀습니다.

《자! 제일 작은 아이부터 시작해라.》 하며 웅화는 그중 작은 아이 두 명을 앞으로 나서게 하였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면 그 중에서 또 작은 아이가 나가기 마련이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직막에는 웅화의 차례가 왔습니다. 웅화는 손 쉽게 상대편을 눕혔습니다.

《이번에는 네 차례야.》

아이들은 떠들썩 고아대며 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씨름은 후에두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만 두자.》

하고 원수님이 말했습니다. 사실 원수님은 만나는 첫 날부터 씨름을 하는 것이 어쩐지 멋 적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꾸만 해보라는 것이였습니다.

《해 보자꾸나. 지면 떨방 자리 나겠니.》

웅화도 이렇게 말하면서 삭바를 원수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원수님은 웅화를 한 번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웅화는 노상 자신만만해 하는 얼굴이였습니다.

(애들이 그럼! 내가 자신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것으로 아는 모양인가?)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났습니다.

《해 볼테면 해 보자꾸나.》

원수님은 웃는 낯으로 삭바를 받아 들고 아이들이 둘러 앉은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나이는 웅화가 두 살이나 우였는데 키는 원수님이 더 컸습니다.

원수님은 오른 다리에 삭바를 끼고 웅화와 마주 섰습니다. 원수님은 왼팔에 삭바를 걸고 어깨를 쓱 밀어 보았습니다. 상대편의 힘을 추맥 떠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웅화도 어깨를 앗아 보려고 납작 엎디고 쑤시고 드는 것이였습니다.

룡훈이는 두 동무의 어깨 우에 손을 사분이 짚고 있다가 《시—작》 하고 구령을 쳤습니다.

두 씨름'군은 허리를 펴고 일어 섰습니다. 원수님은 일어 나자'바람으로 삭바 건 왼 팔을 약간 우로 올리고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웅화를 넁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 손으로 웅화의 왼 무릎을 꾹 누르면서 휙 둘렀습니다. 웅화는 별로 힘도 써 보지 못 하고 보기 좋게 넘어졌습니다.

《야!》 하고 아이들은 환성을 올렸습니다.

《야 한 번 더 해보자.》

웅화는 넘어진채 삭바도 놓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해 봤으면 됐지 뭐 또 하자우, 이거 단단히 걸려 들었는데…》

원수님은 허허 웃으시며 동무들을 쓱 둘러 보았습니다.

씨름은 다시 계속되였습니다. 웅화는 단단한 차비를 하고 달려 들었습니다.

원수님은 두 다리에 균형을 보장하면서 웅화가 하는 대로 좇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웅화도 좀처럼 선손을 쓰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밀려 왔다 밀려 갔다 하면서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웅화의 새근덕거리는 숨 소리가 둘러 앉은 동무들의 귀에까지 들려 왔습니다. 퍼그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소 뿔쌈하듯이 왜 그렁들만 하구있니, 누구 뿔이 부러지든지 달려 들어 봐야지.》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때에 웅화가 오른 팔을 뽑아 원수님의 어깨를 짚으면서 덧걸이를 걸며 허리를 재였습니다. 원수님은 오른 다리에 힘을 주면서 웅화 허리를 왼편으로 꺾어 냅다 밀었습니다. 힘이 딸리는 웅화는 두 세 발'걸음 밀려 가다가 모루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시 환성을 올렸습니다. 응화는 일어 날 용기마저 잃은 모양인지 그대로 누워 눈만 꺼벅이고 있었습니다.

《힘이 장순데!》

한동안 누워 있던 응화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수수 일어 섰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 생각도 하지 않고 뒤통수만 쓱쓱 긁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응화 앞으로 가서 먼지를 털어 주면서

《너 전에보다 힘이 빠졌구나.》하고 말했습니다.

《흥! 내 힘이 빠졌다구?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동네서 이겨댔다.》하며 응화는 어미 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더니

《내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네가 장수가 됐어!》하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원수님은 응화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때에 원수님의 머리에는 7년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도 지금과 같이 따스한 봄날이였습니다. 그 때 무슨 놀음을 하댔는지는 똑똑히 기억되지 않는데 하여간 편을 갈라 가지고 재미 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응화는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에게 마구 욕설을 하고 툭툭 갈기기도 하면서 못 살게 굴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수님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힘이 세다고 약한 아이들을 깔보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님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응화 앞으로 대들었습니다.

《너 왜 작은 아이들을 자꾸만 때리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때에 응화는 원수님보다 나이도 두 살이나 우였으며 힘도 셌습니다. 응화는 원수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때리든 차든 네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응화는 원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아이는 한 번 본때를 보여 주어야 돼!)

원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수님은 비슬비슬 물러 서는 척 하다가 와락 달려들며 주먹으로 응화의 귀통을 사뭇 갈겨 주었습니다. 어찌 호되게 맞았던지 그애는 멍청하니 서고 볼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응화가 대들기만하면 재차 갈겨 주려고 잔뜩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화는 감히 접어 들지 못 하였습니다.

이 때에 응화의 친척되는 사람이 소를 끌고 그리로 지나다가 싸움판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였습니다.《왜들 싸웠니?》

하고 그 분이 물었습니다.

원수님은 그 분 앞으로 가서 싸운 리유를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원수님의 말이 옳다고 두던하였습니다. 그 분은 응화를 타이르고 원수님을 칭찬하더니 소를 끌고 산 밑으로 내려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응화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깔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원수님은 중국으로 갈 때까지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님은 응화를 볼 때마다 그 때 싸운 것이 늘 후회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님은 응화와 더욱 가깝게 놀았습니다. 어느 사이에 응화와는 더욱 친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야! 너 그 때 싸우던 생각 나니?》하고 원수님이 물었습니다.

《생각 나지 않구.》

응화의 대답이였습니다.

《야 나는 그 때 너하구 싸움을 한 후에는 절대루 싸우지 않으려구 단단히 결심을 하구 있었는데 8도구에서 또 한 번 싸움을 했다.》하며 원수님은 응화를 바라 보면서 《하기야 싸우지 않을 수 없었지!》하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응화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옛'이야기라도 기다리는듯이 원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8도구에서 우리 동무들은 밀려 다니면서 재미 있게 놀았어! 8도구 거리를 벅작고아대면서 군사 놀이도 하였고 여름이면 압록강에서 헤염도 치고 물 싸움도 하였고 고기도 잡았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이 강'가에서 군사 놀이를 하구 있는데 말이야! 8도구 거리에 살구 있는 한 청년이 우리들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고리팡즈〉라구 놀려 주지 않겠니.》

《고리팡즈란 말이 무슨 말이냐.》

《조선 사람을 욕하는 중국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원수님은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언제나 우리들을 보면 그렇게 못나게 굴었거든! 여러번 꿀꺽 참아 왔지만은 그 날은 더 참을 수 없더구나! 글쎄 너이들두 생각해 봐라. 이렇게 아름다운 제 나라를 버리구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만 해두 눈물나는 일인데 그런 업수임까지 받구서야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좋은 말두 세 번만 하면 듣기 싫다는데 그런 작자를 그냥 둬선 안 돼!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압록강으로 끌고 들어 가서 물을 한참 먹여 주었겠다 애.》

응화는 노상 눈을 디굴디굴 굴리면서 팔소매를 척척 걷어 올렸습니다.

《중손이한테두 뻥뻥 넘어지면서 네가 누굴 물 먹여 준다구 그러냐. 물'동이나 먹구 나오기는 좋겠다.》하고 룡훈이가 톡 쏘아 주었습니다. 이 말에 응화도 말 대답이 궁해졌는지 눈만 꺼벅이고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빙긋 웃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때마침 옆에 몽둥이가 하나 있더구나. 그래 그 놈을 들구 강'둑을 에돌아 그 청년이 가는 길을 앞질러 가서 언덕 모퉁이에 지키고 있지 않었니? 조금 후에 그치가 거기 나타나더구나. 그런데 내가 숨어 있는 것은 생각지두 못 하구 계속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먹질두 하면서 〈고리팡즈〉라구 고아대더구나. 〈옹! 너 한 개 맞아 봐라!〉하구 몽둥이를 들어 그치의 어깨죽지를 갈겨 댔구나!》

《잘 했다. 아주 잘 했어!》

응화는 머리를 끄덕이며 동무들을 둘러 보는 것이였습니다.

《아니야 잘 한 게 아니야.》원수님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이쿠〉하면서 한 손으로 어깨를 짚으며 펄썩 주저 앉지 않겠니. 나는 와락 겁이 나더구나, 이러는 동안에 강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고함을 치면서 우르르 밀려 오지 않았겠니, 이렇게 되자 그 청년두 겁이 나는 모양이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은 어깨죽지를 쳤는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지 않겠니.》

《어째서 그랬을가?》

《몽둥이 끝이 부러지면서 머리를 스쳤나봐.》

《그래서 어쨌니?》

《내가 저지른 일인데 그냥 버려 둘 수 있겠니. 그래서 그 청년을 우리 병원으로 데리구 갔지.》

《병원으로 가자니까 곧 좇아 가던?》

《자기두 한 일이 있으니까 양처럼 좇아 왔어!》

《그래 너이 아버지는 뭐라구 하던?》

《단단히 욕을 먹을 셈치구 모두 털어 놓구 이야기했지 뭐.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이 약을 발라 주시는거야.》

《거 봐라 네가 잘못 했으면 욕을 안 했겠니. 네가 한 일이 잘 한 일이였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

응화의 말이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 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한테 단단히 이야기를 들었어.》

《뭐라구.》

《중국 사람과 조선 사람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더구나 조선 사람들은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힘을 합해야 한다질 않겠니? 그래서 조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일본놈들을 때려 부셔야 한다는 거야. 결국 원쑤를 치지 못 하구 한 집안 식구를 쳤다는 거야.》

《그럼 그 청년은 잘못 한 게 없다구 하시던?》

《그 청년두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두 누가 원쑤라는 것을 알으켜 주어야 한다는 게지! 나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약을 가지구 그 집으로 찾아 가지 않았겠니. 가서 먼저 어제 내가 잘못 했다구 사죄를 했더니 그 청년은 오히려 자기가 잘못 했다구 사과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머리는 벌써 다 나왔다는 거야. 나는 그 날 그 청년을 따라 산으로 올라 갔었지!》

《산에는 무엇하러?》

《그 청년이 나무하러 가는 데 좇아 간 셈이지. 나는 종일 삭정이도 따 주고 나무도 긁어 주었어.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 주지 않았겠니. 그랬더니 그는 조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니?》

《그 후에는 정말 친해졌어! 그 분은 우리들에게 군사 놀이를 할 때에 쓰라구 견장두 만들어 주었고 칼두 만들어 주었단다.》

《결국 네가 그 청년을 길들인 셈이구나.》

하고 룡훈이가 말하자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진행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에서는 명년도에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앞으로 축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훨씬 향상시킬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또 다시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지금 전체 근로자 아저씨들은 당의 부름 받들고 떨쳐 나섰습니다.

이제 이 과업이 실현되면 우리 인민들은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에 기와집 쓰고 살게 하자는 우리 당의 구호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다음의 그림에서 보람찬 래일을 내다 봅시다.

아동단원의 붉은 넥타이

손 명 직

나는 거리에서나 어느 운동장, 어느 모임 장소에서 소년단원 동무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때마다 나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것은 소년단원 동무들의 앞가슴에 자랑스럽게 드리워 있는 붉은 넥타이입니다.

동무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붉은 넥타이는 영광스러운 조선 소년단의 기본 표식으로써 소년단 기'발의 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으며 소년단원이 민청원을 거쳐 조선 로동당원이 되겠다는 최대의 희망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붉은 넥타이는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붉은 넥타이의 소중함과 자랑스러움은 그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물론 동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그의 믿음직한 후비대였던 용감한 아동단원들의 붉은 마음이 진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1930 년대 아동단원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들처럼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하고 또 그들처럼 마음과 몸을 튼튼히 다져 훌륭한 혁명 전사로 되겠다는 동무들의 불 같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1930 년대 김 일성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과 딸이였던 아동단원들도 바로 붉은 넥타이를 가슴에 매고 싸웠으며, 배웠으며, 자랐습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의 잡지인 《소년단》 지상을 통하여 1930 년대 아동단원들이 붉은 넥타이를 어떻게 귀중히 여겼으며 거기에 표시된 엄숙한 맹세 앞에 어떻게 끝까지 충직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아동단원들의 앞가슴에 드리운 붉은 넥타이의 왼쪽 짧은 끝은 아동단, 오른쪽 긴 끝은 공청, 척추골에 맞춘 둔각은 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동단원의 붉은 넥타이는 삼 세대를 상징하였습니다. 즉 붉은 넥타이는 그 첫 세대들인 아동단원들이 아동단 조직에서 자라 공청 대렬에 들고 공청 조직에서 단련되여 당에 입당한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언제나 깨끗한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다니였습니다. 그들은 넥타이의 한 쪽 끝이 짧아졌거나 구겨지면 《동무, 붉은 넥타이를 봐요.》하고 서로서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길을 걸을 때, 공부할 때, 대렬에 있을 때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다른 동무들을 친절히 도와 주었습니다.

얼마 전 나는 거리에서 대렬을 지어 가면서 한 소년단원이 앞 동무의 넥타이 둔각을 바로 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단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척추골에 맞춘 둔각은 구겨지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동단원들은 언제나 앞 동무와 뒤'동무의 넥타이를 꼭꼭 살펴 보고 구겨졌으면 바로 펴 주군 하였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붉은 넥타이를 규정 대로 단정하게 매고 다니였을 뿐만 아니라 빳빳이 풀이 선 깨끗한 붉은 넥타이를 매고 다니였습니다.

밤에 잘 때에는 물에 약간 추겨서 책보 밑에 깔아 두거나 자리 밑에 깔고 잤습니다.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멀리 통신 련락을 가거나 산에 가서 땔 나무를 하고 나물을 뜯을 때에는 넥타이를 배낭 속에 잘 넣어 두었습니다.

때가 약간 묻어도 곧 빨아서 해'빛에 말

리워 맸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소중히 했을가요? 그것은 아동단원들 누구나가 붉은 넥타이에 깃든 자랑과 맹세와 영예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때나 붉은 넥타이를 만지며, 배고품도, 헐벗음도 참고 견디여 냈으며 붉은 넥타이를 만지며 해방된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아동단 조직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1933년 왕우구 북동 학교에서 공부하며 아동단 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일제 토벌대 놈들이 쳐 들어오는 바람에 한 아동단원이 급하게 산으로 뛰여 올라 가다가 눈무지에 빠져 굴렀습니다. 그 바람에 넥타이가 모두 젖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 가자마자 우둥'불을 피워 놓고 젖은 넥타이를 말리웠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깜박 졸았습니다.

코를 쑤시는 형겊 탄 내에 후다닥 놀라 깨 보니 넥타이에 불똥이 튀여 타고 있질 않겠습니까! 가슴이 덜컥해서 곧 불똥을 비벼 껐지만 더는 맬 수 없게 되였습니다. 유격대 아저씨들의 피가 스민 붉은 넥타이를 태운 그는 어쨌으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때는 붉은 넥타이를 만들 천도 없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유격대 아저씨들이 일제 원쑤놈들과 지주, 자본가 놈들을 쳐 부시고 빼앗아 온 천으로 붉은 넥타이를 만들어 맸던 것입니다. 붉은 넥타이를 태운 아동단원은 분단 회의에서 많은 동무들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경각성 없이 졸고 앉았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아동단의 규률을 어기지 않겠다고 동무들 앞에 자기 비판했습니다. 그는 그 후 자기의 맹세를 훌륭히 지켰습니다.

불에 탄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동무들의 비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말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선히 떠오릅니다.

붉은 넥타이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처럼 조직을 귀중히 여기며 조직의 위임에 충실한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동단원들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 부닥쳐도 간악한 원쑤놈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왕우구 청하동에 있을 때 일인데 대낮에 일제 토벌대놈들이 불의에 쳐들어 왔습니다.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우리는 앞산을 향하여 뛰였습니다.

원쑤놈들은 우리를 보고 마구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한 아동단원이 원쑤놈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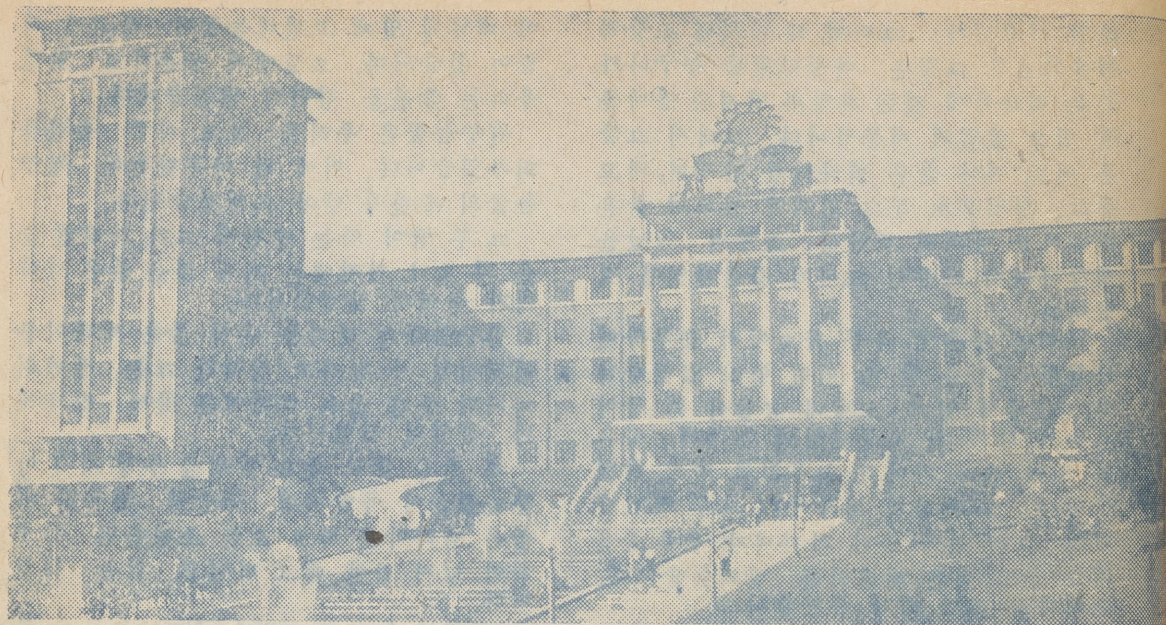
그 후 숨이 지는 순간에 그가 가리킨 곳을 파 보니 거기에는 피에 젖은 붉은 넥타이가 묻어져 있었습니다.

원쑤놈들의 더러운 손에 붉은 넥타이를 어지럽힐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생명의 마지막 순간 붉은 넥타이를 풀어 땅속에 파 묻었던 것입니다.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이 목숨처럼 귀중히 간직한 이 붉은 넥타이를 바로 오늘 소년단원 동무들이 넘겨 받아 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단원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는 이 붉은 넥타이를 동무들은 귀중히 여겨야 하며 그처럼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위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단원들처럼 서로 도와 깨끗한 넥타이를 규정 대로 매고 다니는 것—이것은 곧 그 만큼 조직에 충실하며 또 조직의 규률을 잘 지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런 소년단원들만이 아동단원들처럼 공부 잘 하고 소년단 조직 생활에 충실하며 나아가서는 당과 혁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참다운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동당이 준 우리의 궁전

—평양 학생 소년 궁전에 대한 이야기—

최 복 선

맑게 개인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나는 소년단원들 틈에 끼여 얼마 전에 개관한 학생 소년 궁전을 찾아 갔습니다.

민주 수도 평양의 중심부인 장대'재 언덕 우에 웅장하게 일떠 선 궁전은 우선 그 크기로부터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총 건평 4만 7천 5백 평방 메터에 해발 82.2 m의 높이(모란봉 최승대 높이와 같다)와 지상 높이 44.8 m로 거연히 일떠선 궁전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궁전의 하나이니까요. 이 궁전에서는 인민 학교로부터 고등 기술 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게 75 개의 연구 소조와 150여 개의 활동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국 앞날의 주인공들인 소년단원들과 기술 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재능과 취미에 따라 배운 지식을 튼튼히 다지며 여러 모로 발전된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학생 소년 궁전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항상 두터운 배려를 돌려 주시는 당과 원수님이 주신 크나한 선물이며 종합적인 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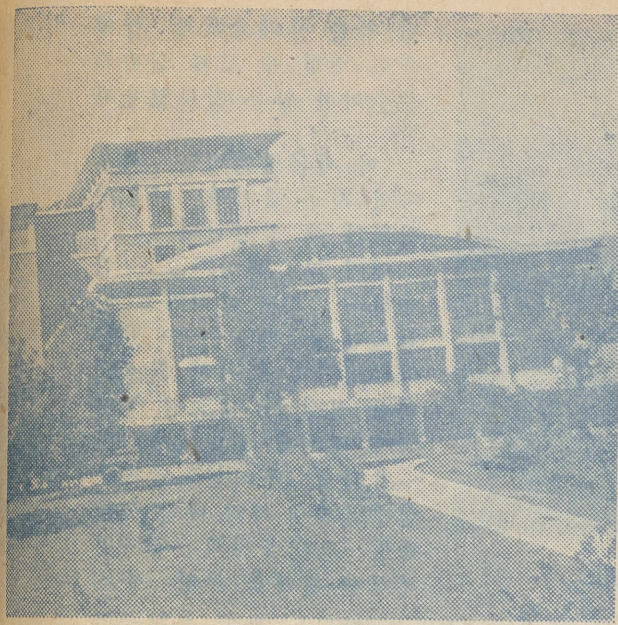
정문에서 현관까지 70 m나 되는 거리에는 원수님 말씀 지켜 지, 덕, 체 파업을 훌륭히 실행하는 소년단원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조각들이 서 있고 락하 분수들이 아롱진 무지개 빛을 뿌립니다.

그것은 알룩달룩 곱게 핀 꽃들과 조화되여 더 한층 궁전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고 있습니다. 현관 앞에 다달으자 정면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김 일성 원수님의 동상이 서 계십니다.

우리들은 원수님의 동상 앞에서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마음 속으로부터의 소년단 인사를 드리며 본관으로 들어 갔습니다.

문에 들어 서자마자 으리으리한 대리석으로 되여 있는 아름들이 기둥들과 바닥과 벽, 천정의 샨데리야, 이 모든 것에 너무도 황홀해져서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옮기지 못 했습니다.

안내원 언니의 말에 의하면 5 층으로 된 이 본관은 과학 기술 연구 소조들과 동식물 연구 소조들이 주로 활동하게 되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라지오, 테레비존실에 들어 갔지요. 방안에는 배전판, 전자기, 복사파 기구, 측정 계기, 영사 록음기 그 밖에 각종 최신식 기계들을 비롯하여 라지오 기계 부속품들이 꽉 들어 차 있는 것이였어요. 특히 우리들의 마음을 끄는 것은 방 한 편에 설치한 전자파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는 안테나였습니다.

이 방에서 앞날의 과학자들이 라지오를 조립하고 분해하며 자기 손으로 마음 대로 다룰 수 있도록 배우며 연구하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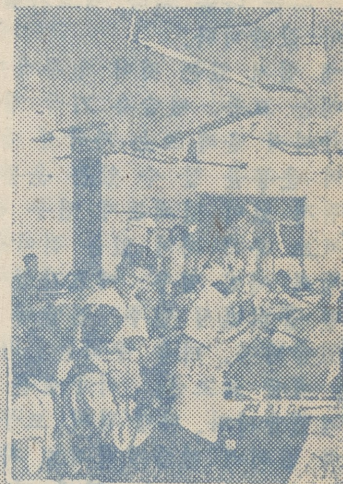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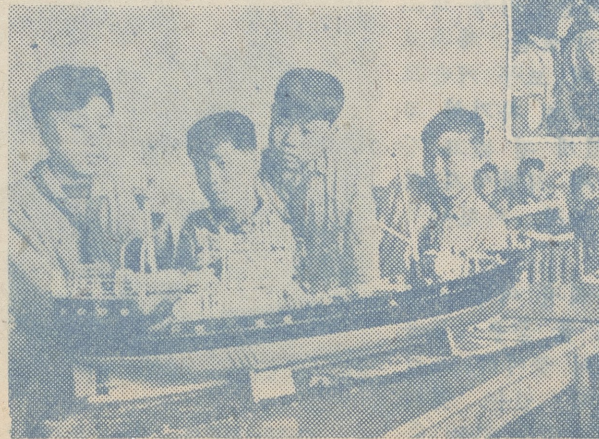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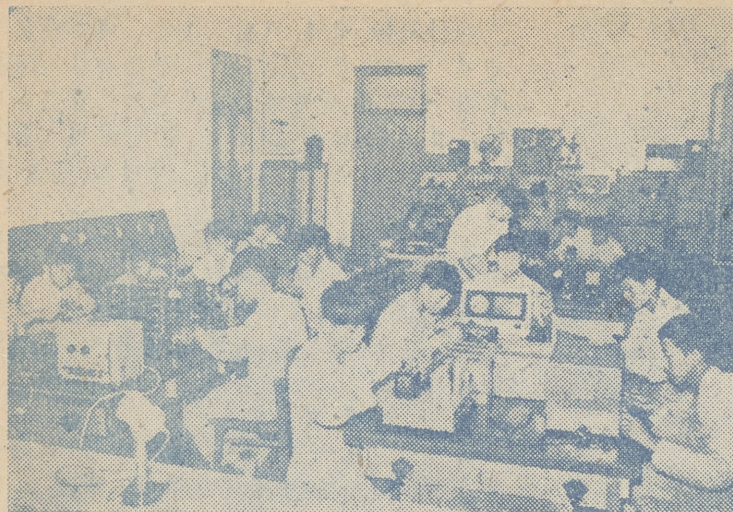
다음 방은 전신, 전화실이였습니다. 실험 실습용 무전기, 교환기, 전보기가 설치돼 있고 탁자 우에는 무전기들이 나란이 놓여 있는 것이였어요.

여기서는 벌써 어린 무전 애호가들이 귀에 레시바를 끼고 제법 무전사가 된듯 무전 송수신 련습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앞으로 국제 무전 통신 경기에서 1 등을 할 꿈을 지니고 있는 것이였어요.

우리가 다음으로 들어 간 곳은 자동차실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의 운전 기술과 함께 기계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할 수 있도록 온갖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야! 저것 봐.》

소년단원들이 손'뼉을 치면서 가리키는 쪽을 보니 진짜 승용차, 싸이드카, 뜨락또르, 승리 58 형 화물 자동차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가 실습용이라는 거지요. 어쩐지 나도 한 번 핸들을 잡고 빵빵 경적을 울려 보고 싶어졌어요. 하긴 자동차 운전 뿐만이 아니랍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것은 다음 방에 있는 모형 항공기 제작실이였습니다.

갖가지 모형 비행기들과 함께 헤리꼽다, 전투기 등이 갖추어진

미래의 비행사와 바다의 정복자로,

—모형 항공기 제작실과 모형 함선 제작실에서—

앞날의 무전 기사들, —라디오 테레비죤실에서—

이 방에서는 앞날의 비행사들이 마음껏 모형 항공기도 만들며 비행기 조정법도 배운답니다.

자기가 만든 항공기에 발동이 걸려서 하늘을 날으게 되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체육 애호가들의 활동실을 찾아 갔습니다.

맨 먼저 있는 것이 권투실이였어요. 여기에는 크롭, 련습용 가죽 장갑, 유니폼, 발목까지 올라 오는 가죽신 등은 물론이고 예비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기구들까지 갖춰져 있어 언제든지 권투 련습과 시합까지도 하게 되여 있는 것이지요.

벌써 어린 권투 애호가들이 땀을 벌벌 흘리면서 권투 련습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다음 우리는 기계 체조실, 예술 체조실, 탁구실을 차례로 구경했습니다. 바람'벽이 모두 거울로 되여 있어서 련습하면서도 자기의 동작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된 넓고 산뜻한 이 방들마다엔 매 사람에게 차례질 수 있는 련습복까지 마련되여 있는 것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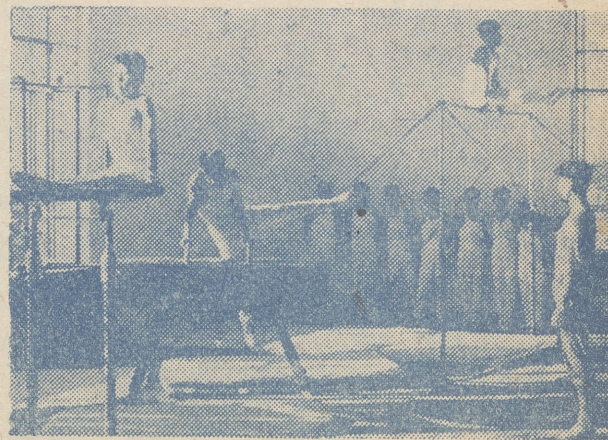
방 한 옆에 있는 문에서 어떤 소년단원 동무가 수건으로 물 묻은 몸을 씻으며 나오기에 기웃이 들여다 보았더니 거기에는 샤와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창 련습을 하며 흘린 땀을 샤와실에서 당장 씻어 내릴 수 있게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이였습니다.

(이 샤와실에서는 겨울이면 더운 물까지 나오게 설비가 돼 있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련습하다 혹시 다리라도 다칠세라 곧 치료할 수 있는 의무실까지 갖춰져 있으며 의사 선생님, 간호원 누나까지 배치돼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과 원수님께서 자라 나는 우리 학생 소년들에게 이처럼 세심한 배려를 돌려 주시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코허리가 시큰해지는 것이였어요. 다음 무용실을 거쳐 음악실로 옮겨 간 우리들은 피아노실, 민족 기악실 등에서 앞날의 음악가들이 제법 피아노와 손풍금, 가야금 등을 솜씨 있게 다루는 데 황홀해져서 한참 동안 넋을 잃고 서 있였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훌륭한 약품들과 실험 기구들이 설치된 화학 실험실, 물리 실험실 등과 미술 애호가들의 유화실, 조선화실 등을 흥미 있게 구경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사진실이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천리마 나래치는 우리 조국의 이모저모를 찍어서 척척

튼튼한 몸으로. —기계 체조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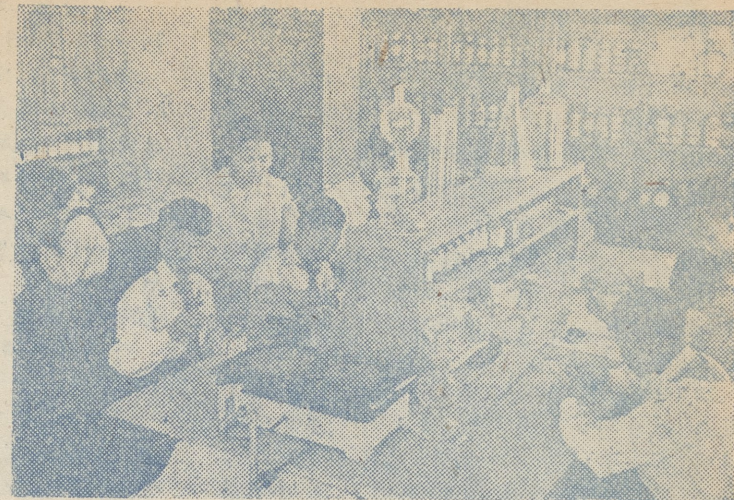
현상할 수 있게 충분히 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진실에서는 매 작업대마다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있는 소조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한 장 찍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앞으로 궁전 전람실에 내놓았다가 찍어 온 학교에 보내 준다는 것입니다.(수다한 필림, 사진기, 알범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매 사람마다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작업대 앞에서는 장래의 사진사들이 오늘 우리 천리마 시대의 대진군의 면모를 필림에 담아 후대에 남기기 위해 한창 알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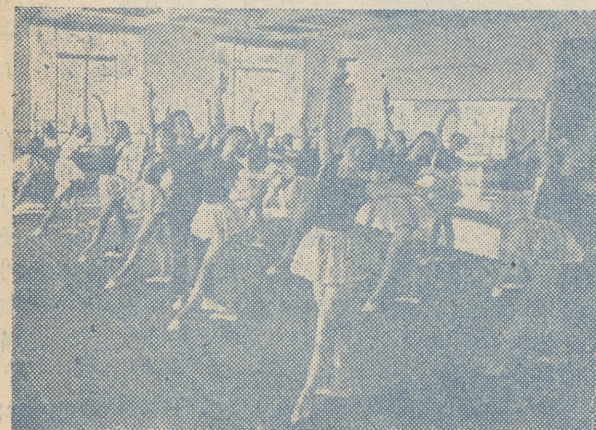
앞날의 화학 기사로. —화학 실험실에서—

다음은 동식물 연구 부문으로 옮아 갔습니다. 농산, 축산, 곤충, 의학을 비롯하여 10 개 연구 소조실로 되여 있는 이 부문 방마다에는 작업대 우에 현미경 기타 연구 재료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연구 소조들에서는 자기의 기본 연구 기지를 야외에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궁전 빠스를 타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협동 농장'벌로, 혹은 과수원으로, 혹은 머루, 다래 무르익는 황금산으로 나가서 연구 재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들어 와서는 실험도 하고 표본도 만들고 한다는 것이였어요. 한편 궁전에 만들어진 온실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연구하기도 한답니다. 연구한 것을 실지 실습을 통해서 발아 상태, 태양 광선 관계, 비료, 토양 등 리론과 실습을 함께 해 나가니 정말로 쓸모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간 곳은 한 물켜니의 소년단원들이 모여서 한창 신이 나서 무엇인가 토론을 하고 있는 방이였어요. 알고 보니 여기는 소년단 열성자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소년단 단체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공부 잘 하고 소년단 생활을 더 잘 하겠는가를 연구하는 소년단 열성자실이였어요. 민청 사업실 역시 기술 학교 민청 단체들의 사업 방법과 형식을 연구하며 정치, 실무 수준을 높여 주고 경험을 교환하는 곳이였습니다.

앞날의 무용가들 —예술 체조실에서—

다음은 500～600 명 정도 활동할 수 있는 넓은 방을 가지고 있는 대중 행사실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영화 감상을 비롯하여 이야기 모임, 연극 및 영화 감상 모임 등을 가질 수 있는 곳이였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조선 예술 영화 《붉은 넥타이》가 상영 중이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다음을 계속 구경해야겠

기 때문에 이 번에는 궁전 도서실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한평생 앉아 읽어도 다 못 읽을 만치 많은 10만 권의 각종 책과 200 좌석의 넓은 열람실이 갖추어져 있였습니다. 물을 뿌린듯이 조용한 열람실 여기 저기에서는 소년단원들과 기술 학교 학생들이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인민들 속에서》들을 비롯하여 각종 문예 서적들과 과학 환상 이야기책들을 보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로 갔답니다. 여기에는 조선 로동당이 걸어 온 빛나는 전투적 행로,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과 혁명 활동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들과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였고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투쟁 모습과 아동단원들의 투쟁 모습을 보여 주는 각종 자료들과 도표, 사판들이 갖추어져 있어 우리 학생 소년들을 혁명 전통으로 무장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이 방을 돌아 나오면서 이 학생 소년 궁전이 김 일성 원수님께서 그처럼 강도 왜놈을 무찌르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에 이미 구상하시고 설계하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더욱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학생 소년들의 재간 있는 솜씨를 키우는 공예실, 재봉실, 수예실 등을 거쳐 체육관에 이르렀습니다.

체육관은 둥그런 지붕 구조로 되여 있는 현대식 건물이였습니다.

여기서는 배구, 롱구를 기본으로 하며 8 가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운동 기구 설비들이 갖춰져 있으며 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관람석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샤와실, 매대가 설비되여 있어 체육 애호가들의 편의를 돌봐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 운동 기구들이 훌륭히 갖춰져 있는 것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궁전 뒤에 웅장하게 일떠 선 극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대극장에 못지 않는 훌륭한 설비를 갖춘 극장이였어요. 여기에도 각종 예술 연구 소조들이 있고 30여 개의 활동실이 있어서 저마다 자기의 취미와 소질에 따라 예술 활동을 하게 되여 있였어요. 여기 관람석은 1,500 석인데 그 중 300 석은 외국의 학생 소년들도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게 5 개 나라 말로 된 레시바 장치가 되여 있었습니다.

극장에는 또 200 명 좌석을 가진 식당도 있었습니다.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다음은 13 층으로 된 탑 부분 건물로 갔습니다. 사방이 유리창으로 된 이 건물은 국제 친선실, 설계 연구실, 지리 연구실, 향토 려행 연구실, 궁전 제품 전람실, 조국의 력사를 연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실, 우주 세계를 직관으로 연구할 수 있는 천문대 연구실 등 각종 연구실로 되여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가금 종류를 연구한다. — 동물 연구 실에서—

유희 오락실에 들어 가니 많은 학생 소년들이 장기, 다이야몬도 등 이름조차 모를 오락 기구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여기서 학생 소년들은 마음껏 웃고 떠들석하기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학생 소년들의 사고력을 발전시키며 그들을 락천적인 정신으로 교양할 수 있도록 꾸려져 있거든요.

다음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천체 망원경을 장치한 13 층 꼭대기

천문대에 올라 갔어요. 나는 여기서 우주 행성들의 움직임과 변화도 보았으며 인공 위성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도 손으로 딸 것 같이 까마득 높은 곳에 서니 평양 시내가 한 눈에 보였어요. 천리마 동상, 대극장, 모란봉, 옥류교, 동평양, 서평양까지…

륭성 발전하는 붉은 수도의 정경을 보고 있는 나에게 안내원 선생님께서 찬찬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였어요.

그들은 소년단 반 사업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소년단 건설실에서—

《저—쪽까지 모두가 궁전의 정원으로 될 계획입니다. 11만 평방 메터로 넓은 공원을 꾸릴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에 있는 식물은 한 종씩이라도 옮겨 심게 하여 식물원을 만들며 소 동물원과 수영장, 오토바이 경기장, 혁명 선배들의 학습 기풍을 회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외 학습터, 650 평방 메터의 온실 등을 설비할 계획이랍니다.》

한창 설명을 듣고 있는 나의 눈앞에는 어느덧 록음 우거진 공원이 펼쳐졌으며 각종 새들이 소년단원들의 노래에 장단 맞춰 노래 부르는 소리가 귀'전에 들려 오는 것이였습니다. 돌아 보니 어느새 몰려 왔는지 소년단원들 한 떼가 부르는 노래 소리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아버진 김 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노래는 어느덧 합창으로 변하여 천리마로 전진하는 조국의 창공에 메아리쳐 갔습니다. 나는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930 년대 15 개 성상을 백두의 밀림에서 일제와 싸우시면서도 항상 조국의 미래인 아동들에 대해 깊은 사랑을 돌리셨으며 아동단원들을 조직 지도해 오신 원수님! 원수님의 넓고 깊은 앞날의 구상이 그대로 이 학생 소년 궁전에 옮겨진 것입니다.

궁전을 건설하기 위해 1956년 1월 내각 결정 7 호를 비롯하여 3 차에 걸치는 내각 결정에 의해서 1958년 초부터 설계가 작성되였으며 설계 및 시공 과정에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20여 차에 걸치는 현지 지도를 주시였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 학생 소년 궁전이 후대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그들의 장래를 념려하시는 원수님의 위대한 구상의 실현이란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꿈 많은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에게서 동화에 나오는 궁전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학에 올라 타고 훨훨 날아 궁전에 가게 되였단다. 아주 넓고 휘황한 궁전에 말이다.》

그러나 그 때 나는 궁전이란 얼마 만큼 넓고 휘황한 것인지 그런 건물을 실지 보지 못한 터이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였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눈앞에는 동화나 꿈의 세계가 아니라 실자로 휘황한 궁전이 펼쳐졌으니…

생각에 잠겨 어린이들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있던 나는 그들이 멀리 함경북도에서, 황해남도에서, 신의주에서 궁전을 찾아 온 소년단원들이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도의 소년들 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 모두의 궁전이니 공화국 각지에서 찾아 와서 마음껏 즐기며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머지 않아 공화국 남반부의 학생 소년들도 이 궁전에서 함께 손잡고 마음껏 배우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남쪽 하늘을 바라 보았어요.

《김 일성 원수 만세!》

《조선 로동당 만세!》

빨갛고 파란 네온싸인들이 남쪽의 밤하늘로 더욱 붉게 비치는 것이였어요.

고주파 재봉기로 비옷을 만든다.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을 찾아서

동평양 청년 거리 대통로를 남쪽으로 내달던 차가 네 벽이 온통 유리로 된 웅장한 《유리집》 앞에서 뚝 멎었습니다.

《야, 굉장하구나! 유리 궁전이로구나!》

차에서 내리는 소년단원들의 입에서는 연신 이런 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이 집이 바로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이였습니다.

소년단원들은 공장 기사장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먼저 1층의 염화 비닐 청년 직장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 직장은 우리 공장의 첫 공정을 담당했습니다. 다른 직장들에서는 다 여기서 재료를 만들어 보내 주어야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의 어머니, 누나들은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인민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일용품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기 위해서 한사람처럼 일떠 섰습니다. 이 번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우리 공장에서 새로 만들어 내는 품종만 해도 벌써 백 수십 종에 달합니다.》

기사장 아저씨는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였습니다.

《야, 사탕'가루 같구나! 아저씨 이건 무엇에 쓰는 가루입니까?》

소년단원들은 저마다 새하얀 가루를 조금씩 쥐여서 비벼 보며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응, 그게 바로 흥남 염화 비닐 공장에서 만들어 보낸 염화 비닐이라는 게야, 그 가루가 동무들의 비옷이 되고 책가방이 되고 필갑이 되지…》

《네!?이 가루가요.》 소년단원들은 저마다 의아스러운 얼굴로 아저씨를 바라 보았습니다.

《왜 의심스러워요? 인제 공장을 다 돌아 보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기사장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시며 비닐 가루에 가소제와 색색 물'감을 타서 쪄 내는 배합기를 거쳐 소년단원들을 육중한 기계 앞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윙윙 돌아 가는 육중한 로라기(반죽이 된 비닐들을 얇게 펴 내는 기계)에서는 색색 가지의 비옷지인 비닐 박막, 가방 자료인 비닐 레자, 그리고 비닐 박판들이 장물처럼 끊임 없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 비닐 박막은 하루에 1만 2천 평방 메터가 생산됩니다. 이것은 2,200 벌의 비옷을 지을 수 있는 량입니다. 그리고 저 레자는 하루에 6,000 평방 메터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1만 2천 개의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사장 아저씨는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비닐 박막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야! 색동 저고리 천 같구나! 요 분홍색으로 비옷을 만들면 곱겠지?》

소년단원들은 더미를 이룬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분홍색, 보라색, 미색 등 색색가지의 비닐 박막, 박판, 레자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색갈들이 마음에 들어요?》 소년단원들의 뒤에 섰던 한 로동자 아저씨가 문득 이렇게 물으며 나섰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정식이가 그 아저씨를 알아 차리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오, 아동 백화점에서 만났던 꼬마 동무들이구만, 공부 잘 했어요?》 하고 정식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였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였습니다. 정식이는 필갑을 사려 아동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아저씨 한 분이 학용품 매대 앞에서 소년단원들의 틈에 끼워 그들의 물건 사는 것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식이가 분홍색 필갑을 하나 사 들고 돌아 서는데 그 아저씨는 그 색이 좋으냐? 모양은 마음에 드느냐? 며 학생들은 어떤 색을 좋아 하느냐? 고 꼬치꼬치 캐여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저씨를 정식이는 오늘 여기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아저씬 이 공장에 계시나요?》

《그럼! 그 땐 소년단원들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가를 알려구 백화점에 갔던 길이야, 우린 자주 백화점에두 가구, 학교에도 나가서 학생들한테서 학용품의 색갈, 모양에 대한 의견을 듣군 합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바쁘신 데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처럼 수고하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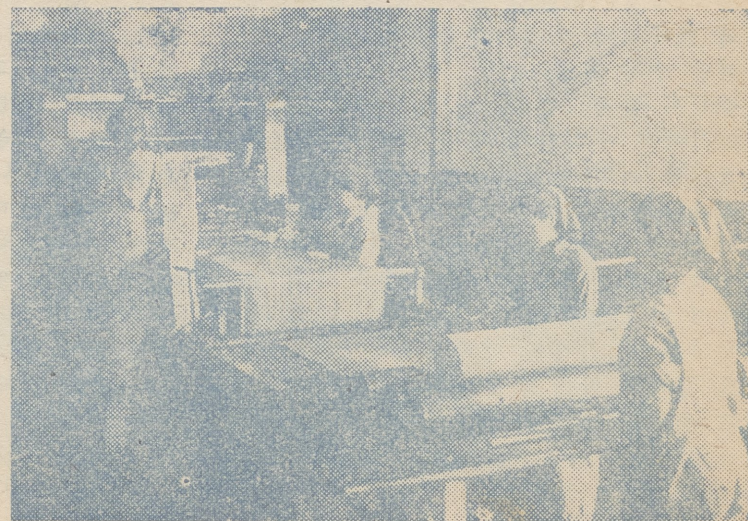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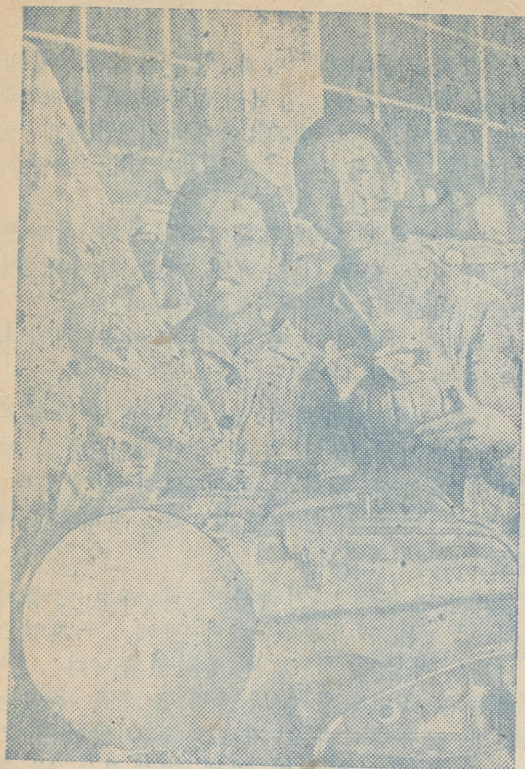
《하하, 우리야 당과 원수님께서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 주라고 하신 가르침을 그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따름이지, 그러니까 감사야 당과 원수님께 드려야지요.》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에게 항상 배려하여 주시는 당과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소년단원들은 2 층의 수지 가공 직장으로 올라 갔습니다.

1 층에서 운반되여 온 넓은 비닐 박판들은 절단기에 들어 가서 팥알처럼 잘게 썰어져 알알이 굴러 떨어져 내려 왔습니다. 이렇게 잘리운 원료들은 각 성형기들에 운반되여 갔습니다.

소년단원들은 기대를 둘러 싸고 만들어져 나오는 제품들을 재미 있게 구경했습니다. 정말 흥미 있는 일이였습니다. 기대들은 소년단원들 앞에서 요술을 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대공들은 앉아서 기대만 살피고 있는데 기대 속에서는 18 초 동안에 한 번씩 12 개의 치솔'대가 밖으로 불쑥불쑥 떨어져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른 기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리빗이, 또 다른 기대에서는 필갑과 비누곽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야, 이것 봐! 원족 갈 때 메는 물'병두

비닐 비옷지가 폭포처럼 쏟아진다.

문양 고운 비닐'보와 놀음'감들.

여기서 만드는구나》, 《삼각자가 나온다 삼각자!》, 《여기선 수체화 접시를 만들고 있어, 어서 와 봐!》, 《야, 이거 정말 못 만드는 게 없구나.》

소년단원들은 제품에 정신이 팔려 공장이라는 것도 깡그리 잊고 제 집에서처럼 법석 고아대며 야단이였습니다.

정말 수지 가공 직장에서는 치솔로부터 시작해서 접시, 곱부, 단추, 쓰레받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년단원들이 떠들썩하며 주고 받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기사장 아저씨는 벙실벙실 웃으시면서 《하기야 지금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의 종류만 해도 700여 종이니까요. 허지만 당과 원수님의 교시대로 하자면 아직도 품종이 작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품종을 1,500 종으로 늘쿨 예정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였습니다.

1,500 종! 이 얼마나 많은 품종인가! 여기에서도 우리는 당과 원수님의 배려로 지금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고 생각하니 가슴이 흐뭇해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배려를 다 돌려 주십니다. 지금 이런 일용품 공장을 가지게 된 것도 우리가 훌륭한 중공업을 건설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정전이 되자 벌써 사흘만에 재'더미만 남은 황해 제철소를 찾아 가시여 이 공장을 복구할 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살림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 우리의 원료와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앞길을 가리켜 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근로자 아저씨들은 재'더미 속에서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모자라는 것은 찾아 내여 철, 기계, 석탄, 전기, 각종 화학 제품 등을 만들어 내는 중공업을 일궈 세워 놓았습니다. 흥남에다가 카바이트로 비닐을 만드는 염화 비닐 공장도 이렇게 하여 건설된 것입니다. 중공업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1,500 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현대식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소년단원들은 3 층의 가방 직장으로 올라 갔습니다. 재봉기 돌아 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재봉공 누나들은 가방을 만드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누나들의 손에 의해 하루에도 3,500여 개의 가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누나들이 만들어 놓은 가방 중에는 유치원생들의 것으로부터 인민반, 초중, 기술 학교 그리고 아버지들이 들고 다니는 각종 가방, 아주머니들이 들고 다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가방과 어머니들이 들고 다니는 구럭 등 60여 종의 각양 각색의 가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7천여 개의 가방이 만들어집니다. 명년도에는 각종 가방의 종류만 해도 200여 종으로 늘어 납니다.》

기사장 아저씨는 가방 직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소년단원들을 이끌고 학생용 가방을 만들고 있는

엄 숙자 아주머니네 작업반으로 갔습니다.

《동무들을 보니 내가 어렸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 전에야 어디 부자'집 자식들이 아니고야 이런 가방을 멜 생각이나 했겠어요. 나는 상기도 책보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서 다 해진 보에 책을 싸 가지고 다니다가 크레용을 잃고 분해서 울던 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동무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그리운 걸 모르고 살다 나니까 학용품을 귀중히 여길 줄을 모르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아마 동무들은 안 그렇겠지요.》

가방 직장에서 가방을 만들면서 하시는 오 태옥 아주머니의 이런 말씀을 듣는 영식이는 자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만 같아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영식이는 책가방으로 꼴문을 만들고 축구 경기를 하군 해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책가방이 벌써 해졌으니까요. 영식이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자신을 뉘우치면서 동무들을 따라 4 층의 일용품 직장으로 올라 갔습니다.

수 많은 현대적인 고주파 접합기와 고주파 재봉기(전파의 힘으로 비닐을 붙이는 재봉기)들로 가득 찬 넓은 일용품 직장에서는 색색가지의 비닐 박막과 무늬 돋힌 고운 날염 비닐을 가지고 각종 비옷, 꽃보자기, 식탁보, 책상보, 이불보, 카텡 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옷의 종류만 해도 유치원 어린이들용, 각급 학교 학생용, 일반 어른용, 뜨락또르 운전수용, 농민들이 일할 때 입는 농민용 비옷들이 있었습니다. 농민 비옷만 해도 날개형, 만또형 등 비옷의 종류는 몇 가지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 비옷들을 비롯해서 원형 가방이라던가 그리고 비옷지, 비닐 테자 등 여러 가지 수지 제품들을 멀리 외국에까지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외국에 가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장 아저씨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소년단원들의 가슴은 더 없이 흐뭇했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창문'가에 다가 서서 창문 넘어 밖을 굽어 보았습니다.

비옷류, 가방류, 각종 학용품 등 갖가지 일용품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공장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문득 소년단원들의 머리에는 아까 기사장 아저씨가 들려 주시던 말씀이 떠 올랐습니다.

《동무들은 우리 공장 하나를 보고 그렇게 놀랍니까. 공화국 북반부에는 평양 방직 공장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경공업 공장들이 2,300여 개나 됩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비닐 제품 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공장들에서 나오는 일용품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경공업 공장들은 물론이고 그 밖의 중공업 공장들에서까지 일용 필수품 직장을 만들고 인민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재봉기, 라지오, 시계, 자전거, 세탁기, 선풍기, 랭장고, 전기다리미, 알루미니움 제품 등이 더 무진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겐 정말 부러운 게 없게 되였습니다.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년단원들은 보다 행복해질 희망찬 앞날을 그려 보며 공장문을 나섰습니다.

비닐로 만든 질 좋은 학용품, 빗, 비누곽들.

아빠트 마을 아이들

—신의주시 청송동을 찾아서—

본사 기자 연 일덕

우리가 청송 마을을 찾은 것은 이른 가을 어느 날 해질 무렵이였습니다.

산뜻하게 단장된 아빠트 마을 아동 공원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물켜니의 아이들이 모여 선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거기서는 한 녀학생이 귀엽게 몸 동작을 하며 동화를 구연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청송 중학교 20 분단 1 반 동무들의 즐거운 동화 모임의 한때였어요. 그 때는 벌써 한 차례씩 거의 끝나 가고 다음 차례는 이야기를 재미 있게 한다는 현숙이의 차례가 된 것이였어요.

그는 우화 《욕심 많은 새끼 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얼마나 재미 있던지 우리도 어느새 그만 그들과 함께 동화 세계에 끌려 들어 가고 말았지요. 마침 동화가 끝나는 무렵 《뗑—뗑—》 어디선가 종이 울리였어요. 그것은 공원에 설치된 종인데 이제는 그만 놀고 모두들 과외 학습을 하라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어느 반 동무들의 과외 학습을 참관해 볼 것인가를 망서리였는데 그만 현숙이네 반 동무들에게 끌려 가게 되였던 것입니다.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

알뜰하게 꾸려진 현숙이네 반실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실만 보아도 부지런하고 착한 반 동무들의 마음씨를 보여 주는듯 했어요.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라고 쓴 구호판 아래에는 가지런히 키돋음하며 올라 가고 있는 붉은 별 따기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진렬된 책장에는 가지가지 재미 있는 문학 서적들과 과학 서적, 그림책들이 반 동무들의 생활을 더욱 흥겹게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벽에 걸린 세 개의 두툼한 스크랩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거기에는 활기 띤 이들의 생활 면모를 잘 보여 주는 갖가지 그림들과 사진, 작문들이 묶어져 있었지요.

《동무들! 모두 조용히 학습을 시작합시다. 먼저 숙제 공부부터 시작합시다.…》

동생들의 과외 학습을 방조해 나선 현철 동무가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였어요. 현철이는 청송 중학교 중등반 2 학년입니다. 현철이는 자기 어머니가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가하셨다가 돌아 오신 그 때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동생들의 반 사업을 자진 방조 해 나선 것입니다.

나지막한 책상에 조른히 모여 앉은 현숙이, 미화, 태옥이, 광일이, 정숙이는 모두 최우등생들입니다. 정말 다정한 한 형제들 같았어요.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이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묻고 이깨워 주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현철이의 방조를 받게 되자부터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 꼭꼭 알고 넘어 가는 것이 생활로 되고 있었어요.

반 동무들은 현철이를 무척 따르고 존경한답니다. 현철이는 자기의 학습만 해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였지만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그는 제 공부는 밤 시간으로 미루고 낮에는 동생들의 과외 학습을 이렇게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현철이는 처음 동생들의 학습장과 교과서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어지럽히거나 째진 곳이 있으면 풀로 붙여 주고 겉가위를 씌워 주는 일부터 시작했답니다.

현철이의 이런 지성에 감동된 반 동무들은 반 생활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처음 반에서는 광일이와 정숙이가 학습에 열성이 없었습니다. 숙제 공부를 때때로 하지 않아 학교에 가면 늘 꾸지람을 듣군 했답니다. 그리고 학업 성적이 늘 보통 성적에 머물러 있어 100 % 최우등 반이 못 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 동무들은 막 안타까와했지요. 그렇지만 반 동무들은 현철 오빠의 꾸준한 방조에 힘을 얻어 광일이와 현숙이를 친절히 도와 나서게 되였지요.

광일이와 현숙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긴 반 동무들은 집단의 힘을 합쳐 그들의 뒤떨어진 학습을 꾸준히 도와 주었습니다.

집단의 꾸준한 방조에 의하여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 알고 넘어 가게 되자 광일이와 현숙이도 차츰 학습에 취미를 부치게 되였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숙제를 제손으로 꼭꼭 하게 되였고 점점 학업 성적도 높아져 갔습니다.

이들은 반 실에 모여 학습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명랑하게 보내는 것이였습니다.

반의 계획에 따라 작문 짓기도 가지지요. 지난 번 공화국 창건 15 주년 기념일을 맞으면서 지은 현숙이의 작문 《우리는 행복해요.》는 분단 집단 앞에서까지 높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현숙이네 이러한 반 생활은 마을에 있는 다른 반들에서도 그 대로 모범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더우기 현철이의 기특한 행동에 감동되여 마을에 있는 전체 상급 학년 민청원 형님, 누나들이 떨쳐 나서서 소년단원들의 반 사업을 스스로 도와 나서게 되자 마을 아이들의 학습과 소년단 반 생활에서는 점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던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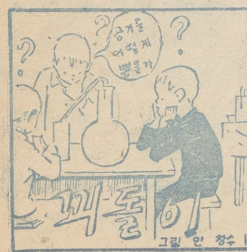
새벽 마을 아이들

다음 날 아침 아동 공원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잠을 깬 우리는 다시 바쁜 걸음으로 청송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아빠트 창'가에 전등'불들이 가물가물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벌써 여기 저기서 소년단원들이 눈을 비비며 청소 도구들을 들고 뛰여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역시 맨 선참으로 뛰여 나온 현철이는 어지럽게 널린 쓰레기 통 주변을 자진해 맡아 나서는 것이였습니다. 저저마다 한 구간씩 맡아 쓸기도 하고 홈을 파서 메우기도 하였습니다.

잠간 사이에 아빠트 마을은 검불 하나 찾아 볼 수 없으리 만치 깨끗이 정리되는 것이였어요.

청소가 끝나자 아이들은 줄을 지여 서더니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상쾌한 기분으로 달리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였습니다. 역전 광장을 한 바퀴 돌아 온 아이들은 잠시 숨을 태우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현철이의 구령에 맞추어 씩씩하게 보건 체조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 때였어요. 5 호동 아빠트에서 비를 들고 나오셨던 한 정호 아저씨는 우리를 만나 이야기하시는 것이였어요. 《마을 아이들이 어찌나 부지런한 지 어른들이야 비를 들어 볼 사이가 있어야죠. 그래 오늘 아침엔 내가 한 번 하리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일찍 나오느라고 했는데 또 늦었군요.》하고 말이지요.

정말 이 곳 마을 아이들은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가꾸는 일이 곧 마을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언제나 자각적으로 마을을 깨끗이 꾸리는 일에 소년단원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누가 하였을가?

우리가 그들의 아침 조기 체조를 보고 돌아 오려고 할 때 마침 쓰레기를 들고 나오시는 인민 반장인 김 옥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김 옥순 어머니는 자못 자랑 삼아 이야기하시는 것이였어요.

《저 애들은 자기네 반별로 서로 좋은 일하기 경쟁을 하느라고 야단이지요.

지난 8월 어느 날이였지요. 어지럽던 수도 주변이 밤 사이에 깨끗이 꾸려진 것이 아니겠어요. 밑에는 하얀 자갈이 조른히 깔리고 둘레에는 맵시 있게 생긴 돌들이 보기 좋게 세워지고 해서 아침에 물 길러 나오셨던 마을 아주머니들은 모두 누가 한 일인가고 이상하다는듯 서로 얼굴들만 마주 바라 보았지요. 알고 보니 이것도 현숙이네 반 애들이 해 놓은 일이였지요. 그런 기특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라고 하시면서 반장 어머니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시였자요.

얼마 전에는 한 어머니가 밤 일로 직장에 나갔다 들어 와 보니 석탄 창고에 석탄이 가득히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것도 마을에서 언제나 부지런하기로 이름난 현철이와 그의 동무들이 일'손이 바쁜 이 어머니를 도운 일이였답니다. 날로 아름다운 일이 늘어만 가고 있는 이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새총으로 유리창을 마스거나 아빠트 벽에 금을 그어 어지럽히는 일들이 이제는 아예 찾아 볼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저저마다 이른 새벽에 일어 나 꽃과 나무에 물을 주어 정성껏 가꾸고 아빠트 현관 문에 못이 하나 빠져도 누가 볼 새 없이 마치를 들고 나서게 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옥순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때 마침 옆에 와 계시던 최 신옥 아주머니가 마을 아이들의 기특한 마음씨를 자랑 삼아 덧붙이는 것이였어요. 《…지난 번에 내가 마을 아이들에게서 톡톡이 망신을 당했지요. 글쎄 빨래를 널려고 나무'가지에 빨래'줄을 매다가 〈어머니! 나무에 빨래'줄을 매면 귀중한 나무가 넘어 가거나 훼서 보기 싫어집니다.〉하고 대드는데 그만 혼이 났어요. 》하고 웃으시는 것이였지요.

어찌 이 뿐이겠습니까! 이곳 마을 아이들은 례절을 지키는 데서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침 저녁은 물론 언제나 어른들을 만나면 한 아이 같이 공손히 인사를 하군 한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례절이 밝은 아이들이기에 아버지, 어머니들 속에서 그처럼 귀여움과 칭찬을 받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니 또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음 놓고 직장에 나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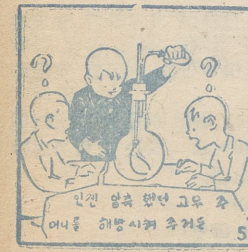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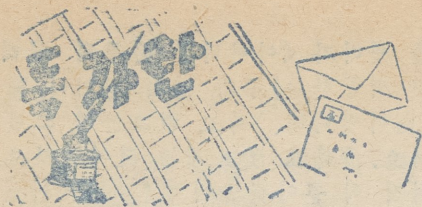
(만화)

서리는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들이 사는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 수증기 량은 공기의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많이 섞여 있고 온도가 낮으면 적습니다.

례를 들면 어느 날 공기의 온도가 낮에는 15 도였는데 밤이 되자 5 도로 내려 갔다고 합시다.

온도가 5 도로 내려 갔다는 것은 15 도 때보다 수증기가 공기 속에 있을 자리가 좁아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 속에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증기는 있을 자리가 없어 다시 공기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밀려》나온 수증기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물로 돌아 갑니다. 이것이 이슬인 것입니다. 그 서리도 같은 리치로 생기는데 다만 다른 것은 이슬은 0 도 이상의 온도에서 생기는 것이고 서리는 0 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증기가 직접 작은 얼음 알맹이로 변해서 되는 것입니다.

(작문)

해군 댕기

반실 공부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애, 학교'길에서 만났던 해군 아저씨의 그 댕기는 뭘 하는 걸가?》 하고 정자가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자 동무들은 모두 머리를 갸웃거리며 해군 아저씨의 군모에 달린 댕기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영옥이가 《보기 좋으라고 단 건 아닐거야.》하고 말했을 뿐이고 누구도 말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아저씨에게 물어서 꼭 알아 내자고 의논했습니다. 반 동무들은 단숨에 해군 아저씨가 계시는 부두'가로 달려 갔습니다. 소년단원의 인사를 하나하나 받으신 아저씨는 우리를 넝큼넝큼 들어 안아 주셨습니다.

때마침 부는 바람에 파도가 출렁이는데 먼 바다에서 발동선이 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해군 아저씨의 댕기는 보기 좋게 흔들리였습니다.

《아저씨, 이 댕기는 왜 달았나요?》

이 번에는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거야 고우라고 달았지 뭐.》 아저씨는 씽긋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제야 아저씨는 우리를 둘러 앉히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댕기는 먼 바다에서 원쑤놈들과 싸울 때 아주 중요한 무기란다. 바람의 방향을 알려 주거든.》 하시더니 아저씨는 미국놈들은 이 댕기를 단 우리 해군 아저씨들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지 않겠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 지난 조국 해방 전쟁시기 우리 인민군 해군 아저씨들은 이 댕기의 흔들림을 보고 원쑤를 맞받아 배를 몰아 가 얼마나 많은 미국 양키놈들을 바다 깊이 처 넣었겠어요.

해군 댕기의 뜻을 안 우리는 곧 반실에 돌아 와 반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는 해군 댕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윤희는 그림을 그리고 정자와 순복이는 동시를 짓기로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쓴 이 작문을 짓기로 하고요.

남흥 중학교 단 제 24 분단 리 금자

(작문 《해군 댕기》를 보고)

독자 문예평

한 끝을 잡아 큰 것을

류 연 옥

작문 《해군 댕기》를 읽고 나니 네 별 김을 말끔히 매서 곧바른 이랑이 선명한 푸른 논'배미를 바라 보는듯 청신하다.

째이고 잘 다듬어진 글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의문이 생기면 이내 알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끝끝내 알아 내고야 마는 소년단원들의 심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반 생활의 생생한 면모를 잘 그려 내고 있다.

아울러 《해군 댕기》라는 한 끝을 잡아 큰 것을 즉 인민군 해군의 위력과 미제에 대한 증오심을 이야기하는 데까지 끌어 나갔다.

이렇게 이 짧은 글에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관련시켜 무리가 없이 담아 놓은 데 성공하였다.

성공한 리유를 두 가지 들어 말할 수 있다. 하나는 하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즉 자기의 생활을 바른 대로 구김새 없이 쓴 것이다. 물론 생활을 그 대로 다 써서는 안 된다. 한 끝을 잡아서 중심을 밝혀야 한다. 바로 그 것을 잘 해 냈다.

다른 하나는 간결한 문장과 생략법을 능숙하게 배합해 가며 힘을 들여 쓴 점이다. 불필요한 것을 가려 내고 추려 내서 정말 여러 차례 김을 매듯 추고한 자취가 보인다. 그러므로 수다스럽지 않은데, 하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을 환히 보는 것처럼 적어 놓았다.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 쓰고자 하는 바를 깊이깊이 생각함과 아울러 글을 다듬고 만지고 정성 들여 손질하는 것이다. 글도 논밭을 알뜰히 가꾸는 것과 매한가지다. 그래서 이 《해군 댕기》는 좋은 작문이 되였다.

겸하여 적은 부족점을 한두 마디하겠다.

《해군 댕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계기에서 약간의 부족점이 있다.

어느 때의 《학교'길》인지 시간이 막연하기 때문에 해군 댕기를 생각하는 것이 좀 부자연하다. 례를 들어 반실 공부를 하러 올 때 해군 아저씨를 만났던 것으로 밝혔더라면 좋지 않았을가.

어울리지 않거나 꼭 들어 맞지 않는 어구들이 있는데 가령 《원쑤를 맞받아 배를 몰아》의 배는 어뢰정이나 구축함, 전함 등으로 해야 옳았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의 문장이 웃부분에 비해 잘 다듬어 지지 않았다.

앞으로 더 좋은 글을 쓰기 바란다.

박 응 호

그림 양 재 혁

8. 나타난 원쑤

그날 어머니는 이야기 모임을 마치고 그 길로 군당 회의에 가셨다. 선동원인 어머니는 매 주 화요일마다 있는 선동원 강습에 가시군 하였다.

이날 밤 명길이는 경팔이와 문일들과 함께 망 보는 장소를 옮기기 위해 의논하고 있었다.

부락의 경비가 강화되면서부터 그 괴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명길이들은 천룡이가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계속 남들 몰래 망 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의 장소를 결정하고 막 일어 서는 때였다.

천룡이가 굴러 들어 오듯 방안에 뛰여 들었다.

《명길아!》

그는 숨이 넘어 갈듯 한 손을 허우적거리며 명길이를 불렀다.

명길이가 급히 그를 일으켜 안았다. 천룡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리여 있었다.

《너의… 너의 어머니가 위험하다!》

천룡이는 두 손으로 명길를 끌어 안으며 다급히 소리 질렀다.

그 말에 세 아이들은 흠칫 놀랐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명길이가 천룡이를 흔들며 정신 없이 물었다. 어찌도 놀라웠던지 목소리마저 갈렸다.

《지…지금 길목에서…너의 어머니 돌아 오는 걸 기 기다리구 있어…》

《누가?》

세 아이가 일시에 물었다.

《우리 아버지가…》

천룡이는 힘 들게 이 한 마디를 내뱉고는 털석 고개를 떨어뜨렸다.

《뭐?》

아이들은 놀랐다.

천룡이의 아버지는 폭격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애가 정신이 나간 게 아

넌가?

명길이는 천룡이의 말이 도무지 믿어 지지 않았다.

《천룡아! 덤비지 말고 좀 찬찬히 말해 봐!》

천룡이는 정신 빠진 아이처럼 멍청하니 한 곳만 지켜 보고 있었다.

《폭격에 죽었다는 건 거짓말이구… 사실은 부엌 아궁 밑의 땅'굴에 숨어 있었어…》

천룡이는 모든 것을 각오했던지 점차 침착하게 말을 시작하였다.

《난…난…이젠 아버지루 생각 안 해…그 놈은… 원쑤놈이야!》

이 뜻하지 않은 일에 아이들은 어떻게 말했으면 좋을 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닌…아니 그 것두 어머니라구 생각 안 해……오늘 죽었다.목 매 죽었지!》

《천룡아! 너 제 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명길이가 좀 떨리는 목소리로 황급히 물었다. 이 모든 사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래는 마음으로…

천룡이는 여전히 침착하였다.

《…학교에서 돌아 가니 어머닌 벌써 허청'간에 목을 매고… 내가 온 걸 알자 그 그놈이 땅'굴에서 기여 나왔지. 그리구는 오늘 밤으로 떠나자구 차빌 하라겠지…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간 것두 그 때문이였어.》

문득 명길이 귀'가에는 병원에서 천룡이가《난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하던 말이 쟁쟁히 되살아 났다.

《그런데 그 놈은 그 전부터 너의 어머닐 노리구 있었어! 날 너의 집에서 밤마다 공부하게 한 것두 다 너의 어머닐 감시하라구 해서…》

천룡이는 괴로와 차마 말을 더 잇지를 못 하였다.

《건 뭣 때문이야?》

경팔이가 날카롭게 소리 질렀다.

《나두 몰라… 덮어 놓구 명길이 어머닐 그냥 두면 우린 죽는다는 거야…》

《개새끼!》

경팔이가 흥분이 되여 주먹을 부르쥐였다.

《명길아! 날 믿어 줘! 난 난 이젠…》

천룡이는 이 말을 하면서야 주루루 눈물을 흘리였다.

《더러운 자식! 그런 놈을!》

경팔이는 부들부들 떨며 금시 천룡이를 때리기라도 할 듯 무섭게 쏘아 보았다.

문일이가 경팔이의 휘두르는 팔을 슬며시 쥐며 천룡이에게 물었다.

《그럼 그 도깨비가 너의 아버지란 말이야?》

천룡이는 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만 놈을 같이 망 보며 데리구 다녔으니 그 놈이 걸려 들 거나 뭐야!》

경팔이도 여전히 증오에 찬 눈으로 천룡이를 쏘아 보았다.

《아냐! 절대로…난 망 본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명길아! 넌 넌 날 믿어 주지?》

천룡이는 굳어진 명길이의 몸을 흔들며 몸부림 쳤다.

명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벽시계가 아홉시를 쳤다.

천룡이가 화닥닥 일어 났다.

《어머닐 구해야 해!》

그는 금방 뛰여 나갈듯 문'고리에 손을 잡았다.

명길이가 급히 그를 붙잡았다.

《같이 가자!》

아이들은 신도 채 신지 못한채 밖으로 뛰쳐 나왔다.

명길이는 도중에 경팔이를 자위대실에 보내고 두 주먹을 부르쥐고 뛰고 또 뛰였다.

뛰여 가는 명길이의 머리'속에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 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얼른거렸고 불쑥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덤벼 드는 광경이 떠 올랐다. 다리가 자꾸 떨리여 뛰는지 걸어 가는지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한편 어머니는 강습을 마치고 혼자서 어두운 밭 사이'길로 걸어 오고 있였다. 어머니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이 발'길을 옮겼다.

문득 낮에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던

일이 생각났다. 어머니 눈앞에는 함뿍 웃음을 담은 아이들의 명랑하고 행복스런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 올랐다. 더우기 자랑에 찬 얼굴로 얌전히 앉아 있던 명길이의 얼굴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철부지 어린 것을 데리고 거지 신세로 이곳저곳을 떠 돌아 다니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아팠다. 설날이면 있는 놈의 아이들은 환한 설빔 옷들을 떨쳐 입고 활개 치며 놀았건만 명길이만은 단벌 무명옷에 그것도 깁고 또 기워 얼룩덜룩한 모양을 하고 남의 눈을 피해 가며 굶주려 떨며 지나지 않았던가.

그 때는 언제 한 번 그 애 얼굴에 웃음이 피여 본 적이 있었으며 말 한 번 크게 해 본 적이 있었던가, 늘 움츠려 들고 눈치'밥을 먹으며 살아 온 명길이.

어머니는 생각을 털어 버리기라도 하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꿈에도 지긋지긋하고 몸서리 쳐지는 일이였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어떤가! 티없는 맑은 웃음이 항상 그 애 얼굴에서 떠날줄 모르며 높은 웃음'소리는 노래처럼 울려 나지 않는가. 그런 데다 아이들의 앞장에 서 나아가는 분단 위원장이고 동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줄도 알고 있다. 말하는 것만 봐도 제법 맘'속에 어른이 들어 앉은듯 그럴사하게 하지 않는가.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언젠가 명길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농산 기사가 되여 어머니를 열싸하게 모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던 것이다.

어머니는 자연 솟구쳐 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금할 수 없었다.

어느 사이엔가 어머니의 생각은 한 곬으로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명길이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피여 나야 하며 그의 앞길엔 행복의 큰길만이 티여져야 한다. 다시는 그 아이들을 가시밭에 몰아 넣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는 명길이를 통해 이 나라 전체 어린이들을 더 복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결심을 새로이 다지는 것이였다.

이 밤'길도 바로 아이들을 위해 걷는 것이거니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솟고 기운이 났다.

이런 생각을 하며 어머니가 어느 유축진 밭 사이'길에 들어 섰을 때였다.

실하게 자라 오른 옥수수가 길 좌우 켠에 늘어서서 길도 훨씬 배좁은 감이 났다.

한 쪽에서 별안간 옥수수'대들이 설렁거렸다.

그러자 그 속에서 웬 그림자 하나가 화닥닥 뛰여 나왔다.

어머니는 미처 소리 칠 사이도 없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여서 아무 것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놈이 어머니에게 덤벼 드는 순간이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하나의 그림자가 뛰여 들었다. 그 동작이 어찌도 빠르고 날쌔였던지 어머니는 미처 보지도 못 하였다.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질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였다.

이런 때 다급히 달려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명길이와 천룡이, 문일이들이였다.

어머니가 무사함을 보자 명길이는 와락 어머니 품에 안겼다. 그것이 명길임을 알자 어머니도 덥석 그를 끌어 안았다.

후에 나타난 사람은 어느 짬에 어머니께 덤벼 든 놈을 꽁꽁 묶고 있었다.

뒤미처 여타문 명의 자위대원들이 경팔이와 함께 달려 왔다.

부락 입구 쪽에 있는 전선'대 불'빛 아래에 이르렀을 때 경팔이, 문일이들은 그만 깜짝 놀랐다.

묶이운 놈은 머리칼이 허리까지 자랐는데 창백한 얼굴도 온통 털부숭이였다. 오래 동안 땅'굴'속에 숨어 있은 놈의 몰골은 흡사 물'귀신 같았다.

별안간 문일이가 경팔이의 옆구리를 꾹 질렀다.

《아!》

경팔이가 입속으로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원쑤놈을 체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적 퍼진 그 수상한 사람이였던 것이다. 그는 안전 군관이였다.

명길이하고는 이미부터 알고 있었던지 그는 빙그레 명길이를 향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렇다. 명길이는 그를 잘 알고 있였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사 쪽에 도깨비가 나타났다면 날도 바로 명길이가 이 아저씨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그는 경팔이, 문일이들도 모르게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이 아저씨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후에 경팔이와 문일이들은 이것을 감쪽같이 숨기고 있은 명길이를 몹시 나무라기까지 했다.

드디여 간악한 원쑤놈은 체포되였다. 이제는 홀로 남은 천룡이가 문제였다. 그는 과연 어떤 아이였을가?

(다음 호에 계속)

겨울철 화분 가꾸기

겨울 동안 방안에서 화분을 가꾸자면 해가 잘 드는 창문'가에 화분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동안 한 자리에 그대로 놓아 두면 해'빛을 받는 쪽으로만 식물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해'빛을 골고루 받도록 화분을 자주 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잎에 먼지가 오르지 않도록 깨끗한 걸레로 자주 씻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잎이나 가시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잎에 먼지가 오르면 식물이 제대로 동화 작용을 못 합니다.

물은 여름보다 적게 주어야 하는데 화분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안은 습기가 매우 적기 때문에 물을 줄 때에는 잎에다도 약간씩 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 꽃이 얼어 죽을가 봐 부엌이나 더운 증기가 나오는 곳에 두거나 또는 다지에따 절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겨울 동안에 화분을 이렇게 너무 더운 곳에 두면 다음 해에 꽃이 잘 피지 않습니다.

방안 문을 열어 놓고 청소할 때는 꽃이 찬바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겨울 동안 방안에서는 그다지 왕성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화분에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옥선화, 부상화, 베고니야, 선인장류들은 손질만 잘 해 주면 겨울이지만 방안에서도 생생하게 자랍니다.

우리는 방안의 화초를 잘 가꾸어 겨울철에도 푸르싱싱한 화초와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합시다.

꿀벌의 세계

평양 건설 대학 원림 강좌 교원 오 면근

영철이는 올해에도 이른 봄부터 뜰 앞에다 꽃동산을 만드느라고 땀을 흘리더니 이젠 제법 알뜰한 문화 주택이 꽃 속에 잠기게 되였습니다.

봄을 맞아 마을에는 집집마다 꽃이 피였지만 그 중에서도 영철이네 집이 제일이였습니다.

하루는 꽃동산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협동 농장 양봉공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꽃이 제일 많이 피는 영철이네 집에다가 벌통을 가져다 놓아야 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꽃동산을 아름답게 꾸며 놓고도 아직 어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영철이는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벌통을 가져다 놓는 날부터 양봉공 할아버지는 매일 한 번씩 찾아 와서 벌통도 손질해 주며 꿀벌에 대한 재미 나는 이야기도 들려 주군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영철이는 차츰 꿀벌들의 재미 나는 생활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 번은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오시더니 오늘은 일요일인데 벌통을 열어 보자는 것이였습니다. 벌통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영철이는 어서 빨리 열어 봤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벌들을 놀래우면 쏜다고 늘 하시더니 어떻게 벌통을 열어 보나? 하고 생각하면서 영철이는 할아버지의 거동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으시더니 모기장 천으로 만든 큰 주머니를 주면서 그것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그 자루 같은 주머니를 쓰고 보니 벌들은 사람을 쏠래야 쏠 수가 없게 되여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벌통 웃뚜껑을 조심히 열어 제끼더니 그 안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네 모 난 얇은 나무틀을 들어 냈습니다. 틀에는 여섯 모가 난 작은 벌집(벌구멍)들이 꽉 들어 차 있었고 그 우에는 아주 많은 벌들이 붙어 있였습니다. 통 안에는 바로 그런 틀이 열 개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통안에 있는 벌이 모두 몇 마리나 되나요? 한 만 마리는 넘겠구만요.》

《그럼, 만 마리야 더 되지, 대체로 3~4만 마리는 된단다.》

《그런데 저 복판에 있는 큰 벌도 꿀벌이나요?》

《이 제일 크고 누런 놈 말이지? 이 놈은 3~4만 마리나 되는 벌들 중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왕벌이란다. 이 왕벌은 다른 벌들이 일해서 벌어 놓은 꿀을 먹고 통안에서만 돌아 다니면서 알도 자기 혼자 다 낳는단다.》

《그러면 그 많은 다른 벌들은 알을 하나도 낳지 못 하나요?》

《그럼, 이 통 안에는 암펄이 왕벌 한 마리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벌들은 모두 왕벌을 잘 보호하면서 왕벌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할아버지, 그러면 수펄은 어느 겁니까?》특별히 검은 빛이 나면서 보통 벌보다 좀 커 보이는 벌을 가리키면서《이놈이 수펄이야.》라고 하시였습니다.

《수펄은 좀 많구만요.》

《그래, 암펄은 왕벌 한 마리지만 수펄은 통안에 모두 합해서 수백 마리가 될 때도 있고 몇 천 마리까지 될 때도 있단다. 그런데 수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먹기는 작은 벌들보다 세 배나 더 먹기 때문에 이 작은 벌들은 왕벌이 알을 낳는 시기에만 수펄을 돌보아 주고 보통 다른 때에는 싫어 하면서 내쫓기도 하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한단다. 원래 수펄도 왕벌처럼 한 마리만 있으면 되겠는데 쓸 데 없이 많이 있으면서 꿀만 먹기 때문에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있을 때에는 사람이 잡아 줘야 한다.》

《할아버지, 그러면 저 작은 벌들만 꿀을 가져 오나요?》

《그렇지, 이 작은 벌들은 암펄도 아니고 수펄도 아니고 그저 일만 도맡아 하는 벌이란다. 그래서 로동벌(일하는 벌)이라고 부르지.》

《꽃에서 꿀 가져 오는 일 말이나요?》

《그럼, 꽃을 찾아 날아 다니면서 꿀을 가져 오는 일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나 다른 일도 많이 한단다.

지금 이 벌들이 붙어서 날개를 흔들고 있지 않느냐? 이놈들은 로동벌 중에서도 늙고 경험이 있는 벌들인데 꽃에서 가져 온 꿀에는 물이 많다고 물을 날려 보내느라고 이렇게 날개를 흔드는 것이란다. 그리고 벌집 속에 머리를 들여대고 있는 이 벌들도 늙은 벌들인데 자기 침(타액)을 뱉아서 더 좋은 꿀로 만드느라고 그러는 거란다.》

《야! 벌들도 대단하구만요!》

《그 뿐인 줄 아느냐. 지금 붙어 있는 벌들은 거의 다 늙은 벌들인데 이들이 왕벌이 낳아 놓은 알도 깨우며 어린 벌들을 먹여 기르기도 하고 왕벌을 잘 보호하며 그러다가 왕벌이 죽으면 대리로 어린 벌 한 마리를 특별히 잘 먹여 길러서 알을 낳는 벌로 만들기도 한단다.》

《문앞에서 보초를 서는 것도 늙은 벌이나요?》

《그렇지, 보초를 서는 늙은 로동벌은 다른 벌이 꿀을 훔쳐 먹으려 들어 오거나 건달을 부리다가 꿀을 적게 가지고 들어 오는 젊은 로동벌이 있으면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또 날개를 흔들면서 벌통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바꾸어 넣어 주기도 하지.

그 대신 젊은 로동벌은 십 리나 되는 먼 곳에까지 꽃을 찾아 날아 다니면서 꿀을 가져 오는데 보통 한 마리가 하루에도 가까운 곳에 있으면 4 천 개나 넘는 꽃을 찾아 다닌단다.》

《할아버지, 그러면 한 마리가 한 번에 꿀을 얼마나 가져 오나요?》

《보통 한 번에 0.2 밀리 그람 정도씩 가져 오지, 그렇게 되면 꿀 한 키로 그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15~80만 번 가져 와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 1 년에는 한 통의 벌에서 100~200 키로. 그람씩 꿀을 낼 수 있다.》

《할아버지! 벌들은 꿀이 어데 많은 지 알고 그렇게 많은 꿀을 가져 오나요?》

《그래 그게 재미 나는 문제다. 벌들은 돌아 다니다가 꿀이 많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벌통으로 날아 와서 다른 꿀벌들까지 모두 데리고 간단다.》

《말도 못 하는 벌이 어떻게 데리고 가나요?》

《그거야 다 방법이 있지, 만일 꿀이 있는 곳이 해가 떠 있는 쪽이라면 벌통 우에 앉아서 배를 흔들고 반대 쪽에 있다면 벌통 밑에 앉아서 배를 흔든다. 그리고 좀 가까운 곳에 있다면 한쪽 방향으로만 동그라미를 그리며 날고, 그보다 멀리 있다면 한번은 바로 돌고 한번은 외로 돌면서 동그라미를 그린단다. 그렇게 되면 다른 벌들은 알아 보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 가서 꿀을 가져 오게 되지.》

할아버지는 통 안에 있는 수펄들을 한 마리만 남기고는 모두 잡아 죽인 후에 다시 뚜껑을 닫아 놓았습니다.

영철이는 이렇게 꿀벌에 대한 재미 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직접 보고하는 과정에 몇 달이 지나서부터는 벌통을 혼자서라도 관리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아버지께 바쁘시면 이제부터는 매일 오시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영철이는 매일 같이 꿀벌의 살림살이를 재미 나게 살펴 보군 하지요.

뜰 앞에 높이 자란 밤나무에서도 고약한 냄새를 피우던 꽃들이 다 떨어지고 콩알만큼씩한 밤'송이들이 잔뜩 맺힌 늦 7월 어느 일요일 아침이였습니다.

영철이는 이 날도 번지지 않고 찾아 나가 벌통 옆에 앉아서 벌들의 행동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 일인지 벌통은 아주 소란하였고 벌들은 구멍이 좁은듯이 무리를 지여 쏟아져 나와서는 윙윙 어디론가 계속 날아 가군 했습니다.

벌들이 어디로 그렇게 무리를 지여 날아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종전과는 달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꼬리를 이어 날아 가는 것이였습니다. 영철이는 너무도 이상하여 벌들이 날아 가는 곳을 따라 가기로 생각했습니다.

뒤'동산 나무숲을 헤치며 약 오리 쯤 뛰여서 어느 한 산비탈에 이르렀을 때 그 곳에서는 거의 50여 마리나 되는 말벌과의 가렬한《공중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땅 우에는 벌써 수 많은 벌들이 죽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통 엄지손'가락 만큼씩이나 크고 배가 적갈색과 검은 빛으로 얼룩덜룩한 보기에도 무서운 말벌들은 꿀

벌이 무리 지여 덤벼 드는 가운데로 한번 날아 가면서 한 뼘이나 될 듯이 크고도 억센 날개 쪽지를 휘저으면 한 번에도 십여 마리의 꿀벌들이 허리가 잘라지거나 목이 잘라지거나 날개가 부서져서 죽어 떨어지군 하였습니다. 그래도 용감한 꿀벌들은 계속 죽음을 무릅쓰고 말벌 한 마리에 수십, 수백 마리씩 달려 들면서 싸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원래 수량 상으로 적은 말벌들은 기운이 빠졌는지 깊은 산속으로 도망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날 영철이는 집으로 돌아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지, 꿀벌들은 어떻게 오티 밖에서 말벌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날아가 싸우는지? 생각 끝에 영철이는 또 할아버지한테 물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봉공 할아버지는 그에 대하여 재미나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벌들은 깊은 산속 늙은 나무 구멍 속에 집을 짓고 사는데 산에 꽃이 적게 피거나 비가 많이 와서 꿀이 모자랄 때가 되면 다른 약한 벌들이 모두어 놓은 꿀을 빼앗아다가 먹으려고 수십,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여서 습격을 가는데 때때로 마을에도 내려 와서 사람이 기르는 꿀벌통을 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시기는 밤나무꽃이 피였다가 진 후라고 하였습니다.

말벌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여 다니면서 꿀벌들을 습격하다가 영철이가 본 것처럼 힘이 모자라면 쫓겨 갔다가도 꿀을 먹어야 살겠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다른 벌들까지 총동원하여 약 500~600 마리씩 무리를 지여 가지고 다시 습격을 해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꿀벌들이 전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그런 걸 알면 재차 습격 오기 전에 사람들이 손 써서 말벌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꿀벌들은 아주 발달한 청각 기관(소리 듣는 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 키로메터 밖에서 날아 오는 말벌 소리를 알아듣고 맞받아 나가서 싸운다는 것이였습니다.

그 후에도 영철이는 꿀벌들을 잘 돌보기에 힘썼습니다.

이듬해 봄에도 벌통 주변에는 꽃을 잔뜩 심어 활짝 피워 놓았으며 매일 아침 벌이 또 없어지지 않는가 하여 눈여겨 보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마가 들어 서자 또 벌들이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온데 간데 없이 줄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철이는 일요일을 정하여 하루 종일 벌통을 지켜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딱》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 나가던 벌들도 한 마리씩 없어지고 들어 가던 벌들도 하 마리씩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군 했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여 이번에는 벌통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아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벌통을 들고 보니 그 밑에는 큰 두꺼비란 놈이 한 마리 앉아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영철이는 두꺼비란 놈이 벌들을 잡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꽃동산에는 꽃씨들이 알망지게 여물었고 꿀벌들은 통에다 꿀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영철이는 화단을 가꾸고 꿀벌을 기르기에 노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홍길동

(제11회)

신구현

⑬⑥ 얼마 후에 길동은 백성의 도움을 받아 울동의 소굴로 쉽게 찾아 갔습니다. 백성에게 기다리라 하고 길동은 혼자서 굴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길동을 발견한 울동의 무리는 우구구 소리를 지르며 벌 떼 같이 달려 들었습니다. 길동은 몸을 공중으로 솟구치며 조화를 부리니 비'발 같이 화살이 날아 들어 울동의 무리를 쓰러 눕히였습니다.

⑬⑦ 길동은 백룡의 외딸을 이리저리 찾아 보았습니다. 한 돌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 아릿다운 처녀가 꽁꽁 묶이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동은 결박을 푼 다음 처녀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녀는 길동을 흘겨 보며 한편 수집어 하고 한편 반기는 낯빛입니다. 길동은 공손히 물었습니다.

《이 곳은 짐승의 소굴이거늘 무슨 일로 이 곳에 이르렀느뇨?》

《나는 망탕산 밑에 사는 백 룡의 외딸로서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더니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잡혀 왔나이다》

처녀는 목이 메여 하였습니다.

⑬⑧ 길동은 백룡의 외딸을 데리고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룡의 외딸은 백성을 물끄러미 쳐다 보더니만

《아저씨!》

하고 달려 들어 막 우는 것입니다.

《보희야! 아 네가 잡혀 온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백성도 처녀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백성은 처녀의 외삼촌이며 농사'군이나, 울동에서 글 잘 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처녀는 글을 배웠습니다.

⑬⑨ 《아저씨는 웬 일이서요?》

《소와 함께 잡혀 왔다. 너 참 장하더라, 넌 줄을 모르고 멀리서 보았다만, 조금도 맘을 굽히지 않고 어린 몸으로 갖은 고문을 이겨 내다니…》

《까마귀 밥이 될지언정 어찌 짐승의 짝이 되겠어요.》

《장하다 보희야!》

처녀는 아저씨 품에서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고 흐느껴 웁니다. 길동의 두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와 작별하던 때 생각이 났습니다.

⑭⓪ 길동은 백룡의 외딸과 그 아저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룡의 기쁨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백룡의 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에는 울동섬 사람 뿐만 아니라 원근섬 사람들도 모여 왔습니다. 울동이란 무리가 전멸되어 그 피해를 입지 않고 모두들 편히 살 수 있게 되였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에서 길동은 백룡의 딸 보희와 백년 가약을 맺고 어머니를 모셔 온 다음에 혼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길동과 보희의 이름을 한 자씩 따서 울동섬을 보길도라고 고쳤습니다.

⑭① 제도섬은 불과 몇 해 동안에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는 락원으로 변하였습니다. 소문이 자자하게 멀고 가까운 섬 사람들한테 퍼져 갔습니다. 부자놈들의 억압과 착취를 피하여 제도섬으로 도망쳐 오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률도국의 가난한 인민들이였습니다. 길동은 이들이 아무 근심 없이 살아 갈 수 있게 크나큰 배려를 돌리였습니다.

⑭② 길동은 도망쳐 온 가난한 인민들을 통하여 률도국 형편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률도 왕은 아주 사나와 인민들을 못 살게 굴 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칠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적개심으로 불타 올랐습니다. 률도국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길동은 후환이 없도록 률도국을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⑭③ 길동은 치백이, 흥갑이, 광업이 등 여덟 장수와 영웅호걸들을 모이게 하고 상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제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요? 인민들이 살기 어려운 률도국을 인민들이 살기 좋은 지상 락원으로 만들자는 리상 때문이 아니겠소. 리상을 실현할 때는 왔소…》

길동은 휑하니 률도국 형편에 대해서 말하고 미리 짜 놓은 작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칩시다 쳐! 소뿔은 단숨에 빼야 하오.》

여덟 장수와 영웅 호걸들은 일떠섰습니다.

⑭④ 때는 깊은 가을, 휑창하니 은'빛으로 번쩍이는 파도 우를 수백 척의 병선이 대를 지어 남으로 남으로 떠갑니다. 맨 앞 병선에는 활빈당 기'발이 펄럭이고 영웅 호걸들의 창과 칼들이 달빛을 머금어 번쩍번쩍거립니다.

⑭⑤ 철봉산은 률도국의 관문이며 천연 요새입니다. 사면이 높고 험한 산으로 막히여 있는 률도국으로 들어 가자면 이 관문을 돌파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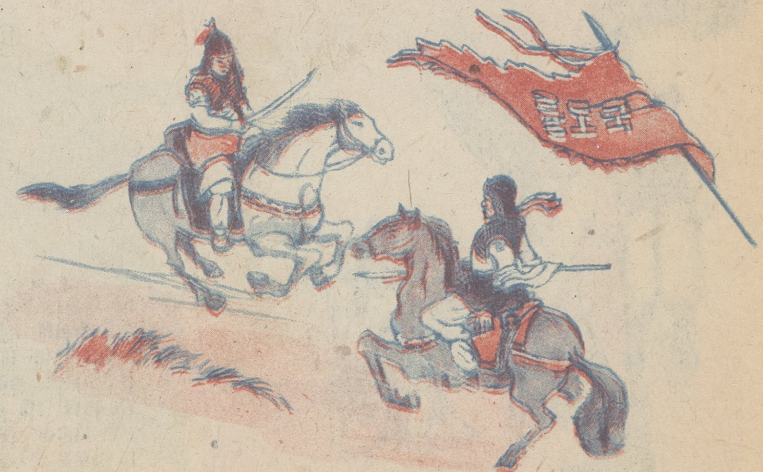
길동은 작전 계획에 따라 이른 새벽에 철봉산 기슭에 올라 진을 차고 북과 징을 울리였습니다.

⑭⑥ 철봉 태수(원) 김 형충은 크게 놀라서 왕에게 알리는 한편 군사를 거느리고 관문을 나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길동은 마숙을 시켜 맞받아 싸우게 하였습니다. 마숙은 본시 률도국 철봉의 가난한 농사'군이였는데 형충의 포악스러운 정치를 피하여 제도섬으로 망명해 온 사람이며 직접 길동에게서 무술을 배운 영웅 호걸의 한 사람입니다.

⑭⑦ 마숙은 선뜻 말 우에 올라 부대를 거느리고 나서서 철봉 사람 마숙이라고 웨치고 싸움을 돋우었습니다.

《네가 바로 작담해서 관청을 치게 한 마숙이냐. 너를 잡지 못 해 악당들의 죄를 다스리지 못 했더니 잘 만났도다.》

형충은 이렇게 호통을 치고 달려 드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⑭ 길동은 조화를 부리였습니다. 다섯 마숙이가 한결같이 날개 돋힌 천리마를 타고 황금 갑옷에 큰 칼을 휘두르며 형충을 에워 싸고 동, 서, 남, 북 중앙에서 짓치는 것입니다.
형충은 정신이 나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⑭ 《네 죽기를 아끼거든 빨리 항복하고 성문을 열라.》
형충이 겨우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고 보니 안면이 익은 마숙이 웨치는 것입니다.
《소장이 이미 잡혔으니 목숨만 살려 주소서.》

마숙은 엄숙하게 또 묻습니다.
《네 나를 아는가?》
《알다 뿐니겠습니까.》
《네 죄를 아는가?》
《……》

⑮ 형충은 자기 손으로 성문을 열고 길동과 의병들을 성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성안 백성들은 한결같이 떨쳐 나와 열렬이 맞이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장수가 되여 가지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허둥지둥 뛰쳐 나온 마숙의 늙은 아버지, 어머니도 끼여 있었습니다.
《마숙아, 마숙아.…》
인산 인해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서 웨치니 마숙이 어찌 알겠습니까.

⑮ 길동은 률도 왕의 죄상을 폭로하는 글을 써서 형충에게 주고 왕한테 가져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의병 대장 홍 길동은 률도 왕이 즉시로 항복할 것을 권고하니라. 왕이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의 왕이거니 그대 천하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 큰 죄를 지었고 천하 사람들 그대를 원망하고 저주해 마지 아니 하는도다. 내 의로운 군사를 일으키여 철봉을 단숨에 치고 래수 김 형충이 항복하니 이제 싸우고저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아니 하거든 즉시로 항복하라.》

⑮ 형충이 도착하기 전에 률도 왕은 자살하고 왕비, 왕자도 따라 죽었습니다. 태산 같이 믿고 있던 철봉 래수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악질 관료들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인민들에게 죄를 지였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악질 관리들을 처단해 일어 났으니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⑮ 길동은 인민들의 지지와 성원 가운데 률도국 수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영웅 호걸들을 여러 지방에 일제히 파견하여 인민들을 위안도 하며 살기 좋은 률도국을 위하여 다 같이 일하자는 글도 내붙였습니다.
《조선 의병 대장 홍 길동은 아뢰노라. 률도국은 어느 한 사람의 률도국이 아니라 백성들의 률도국입니다. 률도국의 주인은 률도국 백성들입니다. 살기 좋은 률도국은 당신들의 재간과 로력에 달려 있습니다. …》

⑮ 백성들은 길동을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길동은 여덟 장수와 함께 률도국 인민들을 정성껏 도왔습니다. 마숙, 김지, 최 철과 같은 률도국의 훌륭한 인재들을 되도록 많이 찾아 내서 중앙 관청의 가장 높은 직책을 맡기였습니다. 김 지는 서자이며 최 철은 종의 자식으로 어제까지 학대 받던 사람들입니다. 6도 390주 지방 관청도 률도국 인재들로 꾸리였습니다.

⑮ 3년도 못 가서 률도국은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하였습니다. 기후도 따사롭고 땅도 기름진 데다가 사람들이 일에 성수까지 나서 해마다 만풍년이 들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소년단의 상징

김 달모

소년단의 상징에는 소년단 기'발, 소년단원의 붉은 넥타이, 소년단원의 경례 등이 있다.

소년단 기'발

조선 소년단과 각 도(직할시 —평양시, 개성시, 청진시, 함흥시 등), 시 (구역), 군 련합 단체 및 학교 (학원) 야영소 단은 자기 단체의 기'발을 가진다.

소년단 기'발은 조선 소년단이 김 일성 원수님께서 조직 지도한 항일 유격대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아 조선 로동당의 가르침 대로 공산주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소년단 기'발은 어떤 때에 사용하는가.

소년단 기'발은 국가적 명절과 혁명 기념일의 시위 대렬, 단 총회 (대표자회), 사열식, 행군, 견학, 체육 대회 등 소년단의 의식을 적용하는 조직적인 활동과 행사 시에 사용한다. 기'발을 휴대할 때에는 2~5 명의 호기수와 함께 단 기수(혹은 단 위원)가 휴대한다. 기'발은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단 위원회가 책임지고 소년단실(련합 단체 기'발은 해당 민청 위원회)에 잘 보관한다.

각급 련합 단체 기'발은 련합 단체 대회에서 민청 중앙 위원회의 이름으로 해당 도(직할시),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가 수여한다.

분단은 분단 기'발을 가진다

분단 기'발은 단 총회 (또는 대표자회)에서 단 위원회의 이름으로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수여하며 단'적으로 조직하는 행사에 분단이 참가할 때와 분단의 집체적 행사 때에 분단 기수 (혹은 분단 위원)가 휴대하며 단 기'발과 함께 소년단실에 보관한다.

소년단원의 붉은 넥타이

소년단원의 붉은 넥타이는 영광스러운 조선 소년단의 기본 표식으로써 소년단 기'발의 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으며 소년단원이 민청을 거쳐 조선 로동당원이 되겠다는 최대의 희망을 표시한 것이다.

붉은 넥타이는 10 대 6 비례의 등변 삼각천으로써 저변은 110 cm (혹은 90 cm)이며 높이는 37 cm (혹은 30 cm)이다.

소년단원 동무들은 붉은 넥타이의 영예로운 뜻을 항상 간직하고 그를 규정 상 요구대로 소중히 착용하여야 한다.

붉은 넥타이를 언제나 구김'살이 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다려 매며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붉은 넥타이를 규정 상 요구대로 정확히 매고 다녀야 한다.

둔각을 척추골에 맞추고 앞 가슴에 드리운 오른쪽 끝을 밑으로부터 우로 한 바퀴 돌려서 교차된 틈으로 올려 뽑고 고리 속으로 내려 뽑아 적당히 조인다.

넥타이를 매였을 때 긴 끝은 가슴 뼈의 끝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취침할 때에는 반드시 넥타이를 깨끗이 펴서 잠자리에 깔거나 다리미로 다려서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착용하여야 한다.

소년단원의 경례

소년단원의 경례는 소년단원의 구호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빛나게 실천할 굳은 결의를 다지며 동무들을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단결할 것을 표시하는 소년단원의 정중한 례절이다.

소년단원의 경례는 다섯 손'가락을 가볍게 모으고 오른 손을 자기의 앞가슴을 자연스럽게 거쳐 머리 우에 올린다.

이 때 손은 앞사람에게 손'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쳐든다.

소년단 경례는 우리 나라 애국가와 《인터나쇼날》 그리고 형제 나라 국가를 주악할 때와 렬사 묘지 앞을 지날 때 소년단 경례를 한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이 서로 인사할 때에는 누구나 먼저 보았을 때 《준비하자!》 라고 경례하면 상대방은 《항상 준비!》라고 하면서 경례를 한다.

웃어른에게 인사할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등 적당한 인사의 말을 할 수 있다.

분단, 반이 렬을 짓고 행진하다가 대렬이 서로 어기게 되는 경우나 추모탑을 지나게 될 때는 대렬 인솔자만 인사한다.

실내에서도 소년단 경례를 하며 써클 소개자인 경우에는 손만 들고 인사의 말은 하지 않는다.

소년단원의 표식

소년단원의 휘장

소년단 휘장은 소년단 조직의 한 성원이라는 것을 표시하며 항상 왼편 가슴 우에 단다.

공화국 기'발의 색조화를 띈 책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따라 앞날의 믿음직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배워 나가겠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며 세 갈래의 불'길은 소년단원이 민청원을 거쳐 조선 로동당원이 되겠다는 최대의 희망을 표시하고 있다.

소년단 휘장은 소년단 입단 맹세를 위한 단 총회에서 수여 받는다.

단, 분단 위원 및 반장 표식

단, 분단 위원, 반장 표식은 소년단 조직이 준 영예로운 책임과 소년단원들로부터 받은 두터운 신임의 표시이다.

그러므로 단, 분단 위원, 반장 표식을 항상 정확히 달고 다니는 것은 소년단원들의 친근한 벗으로서 자기의 영예로운 과업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는 결의의 표시이다.

이 밖에 의식 활동에 리용되는 호위기 (련합 단체 대회 때만 사용), 지휘기, 신호 나팔, 대고, 소고, 제금 및 수기 등이 있다.

(만화)

유쾌한 오락실

현상 문제

어디가 잘못 되였을가요?

이것은 영수가 저녁 하늘 모양을 그린 그림입니다. 동무들은 이 그림에서 잘못 그린 점은 없는가고 살펴 보시오.

(인민반 용)

나누어 보세요

영숙이네 분단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모양의 딸기밭을 가꾸고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돌보기 위해 8 개 반에 꼭 같은 면적과 모양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을가요?

(중등반 용)

썰매 타고 노는 유희

유희장은 눈이 많이 내린 15~20 도의 경사진 곳을 정하는 것이 좋다.

유희장 거리는 약 20~30m 거리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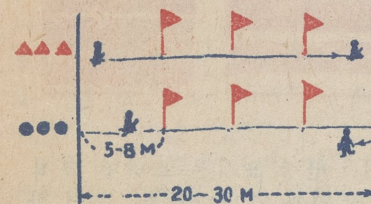
유희는 반, 분단별 경쟁을 할 수 있다.

준비품은 적당한 량의 썰매와 수기를 준비한다.

유희 방법은 리레이 식으로 하되 첫 유희자가 출발선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 가면서 5~8m 간격을 두고 수기 1 개씩 3 개를 꽂고 목표에까지 가 닿으면 다음 유희자가 출발하여 첫 유희자가 꽂은 수기를 모두 거두어 가지고 목표까지 가 닿는다. 다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한다. 그리하여 먼저 끝난 편이 승리한다.

주의할 점

① 장소 선택에서 돌과 기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② 유희 진행에서 수기를 정확히 꽂아야 하며 유희자가 목표까지 가 닿은 다음에 다음 유희자가 출발하여야 한다.

손'가락 력서

날'자와 달을 알면 요일을 알아 맞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 맞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1과 같이 왼쪽 지시손'가락 마디들에 달과 요일을 붙입니다.

먼저 알려고 하는 요일의 달을 짚고 시계 바늘이 돌아 가는 방향으로 다음 마디부터 날'자 만큼 수'자를 세여 가면 알려는 요일을 알게 됩니다.

1964년도의 요일을 알자면 시계 바늘이 돌아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요일의 위치를 한 자리씩 이동하면 됩니다. 래년의 《력서》는 그림 2와 같습니다.

(그림 1) (그림 2)

9 호 현상 문제 해답

△ 인민반 용

6	7	2
1	5	9
8	3	4

△ 중등반 용

형은 7 세, 동생은 5 세.

9 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양시 교원 대학 부속 중학교 리 기영, 김 성삼
함북도 길주군 봉암 중학교 리 순음
함남도 오로군 동양 중학교 리 기섭
평북도 운산군 금산 중학교 조 순희
강원도 문천군 문천 중학교 안 양수
황북도 서흥군 신당 중학교 박 인남
황남도 해주시 왕신 중학교 김 연옥
자강도 강계시 남산 중학교 리 석규
량강도 부전군 호반 중학교 신 일환
평남도 녕원군 중삼 중학교 리 턱수
개성시 동현 중학교 김 장수
황남도 평천군 군동 중학교 량 옥분
황북도 금천군 량합 중학교 강 득화
평북도 운전군 대령강 중학교 김 향직
함북도 경성군 오상 중학교 김 영철
량강도 혜산시 로중 중학교 한 보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3 년 제 11 호 (총 169 호) 편집 위원회
1963년 10월 25일 인쇄 1963년 11월 1일 발행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ㄱ—330629
값 25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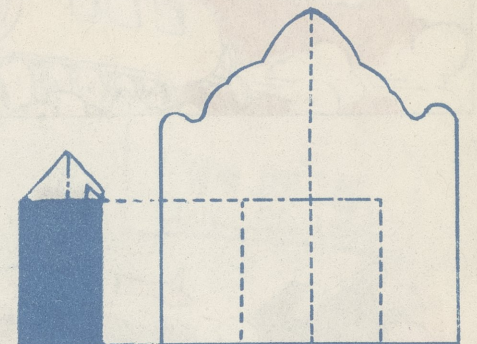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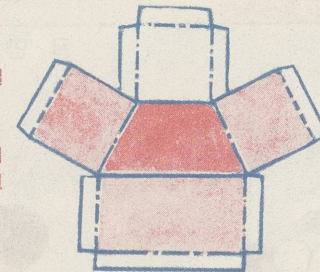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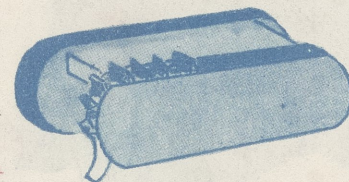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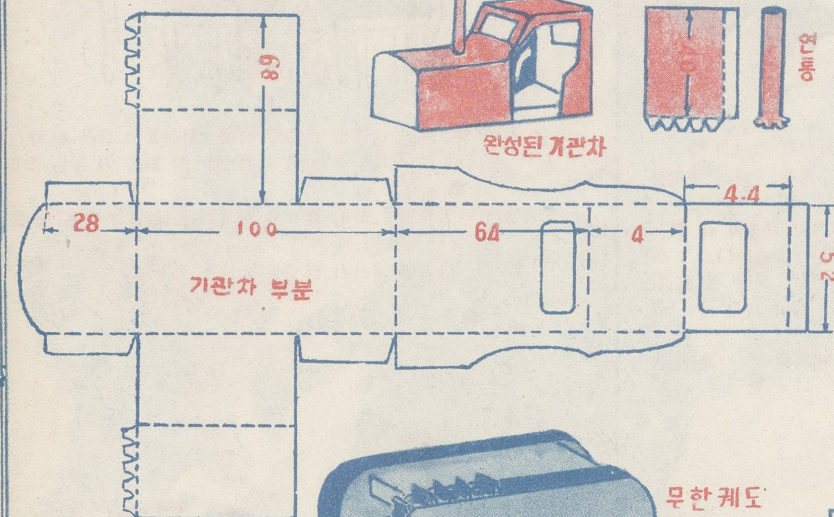
(공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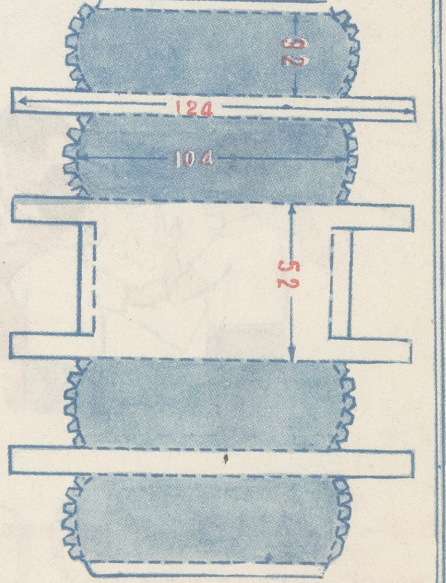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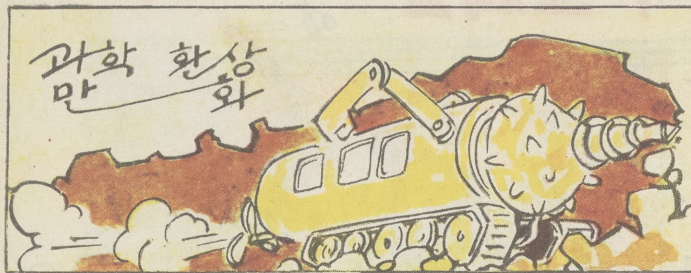
필 통

다음 그림을 보고 필통을 만들어 보십시요.

이 필통은 잉크병을 끼우고 그 뒤에 연필 또는 철필대를 끼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잉크병이 크면 전체 균형을 맞추어 크게 만들고 잉크병이 네모나면 구멍을 네모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도만 제시하고 치수는 쓰지 않았습니다.

뜨락또르

다음 그림의 규격을 확대하여 그리고 선을 따라 오려낸 다음 점선 부분을 접어 완성된 그림 모양대로 붙입니다. 조립이 완성되면 뜨락또르의 겉 모양을 그려 놓으십시요. 그러면 더욱 고운 뜨락또르가 됩니다.

과학 환상 만화

땅속 보물을 찾아서 (제1회)

글 안 현룡 그림 안 창수

① 명히—《야! 천지가 보인다.》

선생—《저렇게 아름다운 천지가 어떻게 형성된지 압니까?》

창남—《지금부터 수 만 년전 화산이 터질때 불과 뜨거운 돌물을 내 뿜던 자리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되였습니다.》

선생—《옳습니다. 백두산은 지금 뜨거운 돌물과 연기를 내 뿜지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엔 뜨거운 돌물과 불덩이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돌물이 식으면서 금, 은, 동, 철, 기타 모든 것이 되였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 땅속의 비밀을 다 알아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창남—《우리 그 속에 들어 가 아직 모르는 비밀을 연구 해 볼가.》

② 창남—《관식이 의견이 좋은것 같애. 지상에서 물리 탐광 기구로 연구하는 것 보다 직접 땅속에 들어 가 보는 것이 어때.》

명히—《땅속으로 들어 갈수록 압력과 온도가 높아진다는데 힘들지 않을가.》

관식—《그러니 우리가 연구를 하자는 것이 아냐.》

③ 창남—《우리들이 모를 문젠 과학원 선생님들에게 가지고 가서 방조를 받는게 어때.》

명히, 관식—《옳아, 그게 좋은 생각이야.》

④ 박사—《동무들이 지금 만든 탐사차는 차가 돌을 뚫으면서 생기는 온도를 타산 하지 않았습니다.

창남—《우린 땅속으로 33 m씩 깊어지면서 온도가 1도씩 증가 1200도 가량 되는 40 km 깊이에까지 들어 갈 수 있는 차를 계했습니다.

박사—《그러니 〈T 470형〉 철 보다 새로 발명된 〈F 50××〉철을 야합니다.》

(다음 호에 계